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중·고령기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 분석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여 혜 수

중·고령기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 분석

지도교수 홍백의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여 혜 수

여혜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김태성 (인)

부 위 원 장 하정화 (인)

위 원 홍백의 (인)

국문초록

중·고령기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여 혜 수

본 연구는 중·고령기 노동생애에서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은퇴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퇴직 경험 이후 고용형태 변화 궤적을 통해 은퇴경로를 유형화 하고, 도출된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은퇴연구는 은퇴를 과정으로 보면서 은퇴와 은퇴 후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은퇴과정의 종단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연구에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고령기 이후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실태를 반영하여 은퇴의 선행사건에 해당하는 중·고령기 퇴직사유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고령기 퇴직 경험과 그 사유는 그 이후의 노동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중·고령자의 퇴직 자발성 여부가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 경로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연속적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은퇴유형 분석에 있어서는 중·고령기 퇴직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의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퇴직 경험이 그대로 은퇴로 이어지게 되는 “퇴직-은퇴 동일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퇴직 경험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점진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퇴직-은퇴 분리형”이다. 그리고 “퇴직-은퇴 분리형”은 다시 노동시장 재진입 기간에 따라 단기형과 장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유형을 분석했을 때, 자발적 퇴직 집단에 비해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은퇴시기도 더 늦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진입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 변화에 있어, 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퇴직자는 임시·일용직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자발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 분석대상을 다시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따라 추가 분석했을 때,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도 은퇴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임시·일용직에 종사했던 퇴직자가 가장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 모두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은퇴유형분석에 따른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과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변수도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퇴직 자발성 여부를 통해 은퇴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비자발적 퇴직자의 취약점에 대한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의 함의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었던 집단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정책적 관심이 매우 촉구된다. 결론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은 퇴직 이후 노동궤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은퇴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따라 고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으로서 개인이 퇴직에 대한 자발성을 획득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동생애에 걸친 고용정책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주요어: 퇴직 자발성, 집단중심추세모형, 퇴직, 은퇴, 은퇴과정
학　번: 2010-22998

목 차

제1장 서론_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연구문제 ····· 5

제2장 이론적 배경_7

제1절 퇴직과 은퇴 ····· 7

1. 퇴직과 은퇴의 정의 ····· 7

2. 과정으로서의 은퇴 ····· 9

제2절 한국에서의 퇴직과 은퇴: 비자발적 퇴출 ····· 11

제3절 은퇴과정에 대한 문헌검토 ····· 15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_19

제1절 연구모형 ····· 19

제2절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 21

1. 분석대상 ····· 21

2. 분석자료 ····· 22

제3절 변수 정의와 측정 ····· 23

1. 은퇴유형 분석 ····· 23

2. 은퇴유형 영향요인 분석 ····· 25

제4절 분석방법 ····· 27

1. 집단중심추세모형 ····· 27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30

제4장 은퇴유형 분석결과_32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32

제2절 전체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 34
1. 전체퇴직자 은퇴유형 ····· 34
2. 전체퇴직자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 37
3. 전체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41
4. 전체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 42
제3절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 44
1.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 44
2.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 46
3.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50
4.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 52
5.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 53
제3절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 73
1.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 73
2.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혈별 고용형태 특성 ····· 75
3.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78
4.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 80
5.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 82
제4절 소결 ····· 103
1. 은퇴유형분석 결과 ····· 103
2.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 105
3.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 108

제5장 은퇴유형 영향요인 분석결과_113

제1절 퇴직의 자발성 영향요인 ····· 113
제2절 퇴직자발성에 따른 은퇴유형 영향요인 ····· 116
1.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영향요인 ····· 116
2.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영향요인 ····· 119
제3절 소결 ····· 122

제6장 결론_124

제1절 연구요약 ····· 124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26

※ 참고문헌_128

표 목 차

<표 1> 은퇴유형 모형적합도 기준 ····· 29
<표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33
<표 3> 전체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 35
<표 4> 전체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 37
<표 5> 전체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39
<표 6> 전체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42
<표 7> 전체 퇴직자 경제적 특성 ····· 43
<표 8> 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 44
<표 9> 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 46
<표 10> 전체 자발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48
<표 11> 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51
<표 12> 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 52
<표 13> 종사상 지위별 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 54
<표 14> 종사상지위별 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 57
<표 15> 상용직 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59
<표 16> 임시· 일용직 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62
<표 17> 자영업 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65
<표 18>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67
<표 19>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 71
<표 20> 비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 73
<표 21> 비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 74
<표 22>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76
<표 23> 비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78
<표 24> 비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 81
<표 25>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 82
<표 26>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 87
<표 27> 상용직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89
<표 28> 임시· 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92
<표 29> 자영업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 95
<표 30>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97
<표 31>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 100
<표 32> 최적모형별 집단 비율 ····· 104
<표 33> 최적모형별 특성 요약 ····· 105
<표 34> 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9
<표 35> 비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10
<표 36> 종사상지위별 퇴직자발성에 따른 경제적 특성 ····· 112
<표 37> 퇴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5
<표 38> 자발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8
<표 39>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1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20
[그림 2] 전체 퇴직자 2집단 모형 ····· 36
[그림 3]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40
[그림 4]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40
[그림 5] 전체 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 45
[그림 6]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49
[그림 7]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49
[그림 8]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49
[그림 9] 상용직 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 55
[그림 10]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 56
[그림 11] 자영업 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 56
[그림 12]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60
[그림 13]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60
[그림 14] 임시· 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63
[그림 15] 임시· 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63
[그림 16]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66
[그림 17]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66
[그림 18] 전체 비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 74
[그림 19]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77
[그림 20]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77
[그림 21]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77
[그림 22]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 84
[그림 23]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 85
[그림 24]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 86
[그림 25]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90
[그림 26]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90
[그림 27]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90
[그림 28]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93

[그림 29]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93
[그림 30]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96
[그림 31]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 96
[그림 32] 은퇴유형 구분 기준 ····· 103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중·고령기 노동생애에서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은퇴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퇴직 이후 고용형태 변화 궤적을 통해 은퇴경로를 유형화한다. 그리고 유형화에 따른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 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연령대 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노인세대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근로를 진작시키고 노동력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는 고령자의 노동력을 보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정해진 퇴직연령보다 일찍 일자리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들의 퇴직사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의 사유가 27.0%,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퇴직한 고령자가 7.9%이다. 여기서 강제규정인 정년퇴직(10.7%)까지 더해지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고령자가 전체 퇴직자의 1/3 수준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자들에게 퇴직의 자발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퇴직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76.2%로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94.75%가 정년제도를 실시하며 정년연령도 55세 전후에 불과하다(2009년 기준). 그나마 정년제가 있다하더라도 정년연령까지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에서는 퇴직연령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서 실제로는 정년퇴직연령보다 낮은 연령에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지은정, 2011).

비자발적 퇴직과 더불어 퇴직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퇴직과 노동시장을 벗어나게 되는 시기에서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 근거로 퇴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균연령은 만 53세로 나타났으며, 전체 퇴직연령 중 50대에 그만둔 비중이 43.2%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이에 반해, 직장에서의 퇴직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실제 은퇴연령은 71.4세(2011년 기준)로 나타난다(OECD, 2013). 이와 같은 현황들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퇴직과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은퇴와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관심을 경각시킬 뿐만 아니라, 퇴직과 은퇴에 대한 구분을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은퇴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퇴직 문제는 근로자의 약 절반가량이 50대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만연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비자발적 퇴직 이후의 영향에 있어서도 문제시 될 수 있다(Palmore et al., 1985). 이처럼 비자발적 퇴직은 은퇴 전·후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도 은퇴과정과 연계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은 노동시장에 속해 있으면서도 소득 상실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또, 축적되어 나타난다(Malo & Muñoz-Bullón, 2008). 또한 지속함정가설의 예와 같이, 비자발적 퇴직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자발적 퇴직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위험이 보다 심각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차단되어 '실업→저임금 일자리→실업→저임금일자리'라는 이행과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Ramos-Diaz, 2005; 윤윤구·박성재, 2008 재인용).

특히, 중·고령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경우, 이들은 청년층에 비해 퇴직 이전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길고, 또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고령 근로자들은 대부분 가계의 주된 수입원이 되므로 이들의 비자발적 퇴직은 가계의 소비감소와 소비침체로 이어져서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김태훈·박용현, 2010). 이처럼 비자발적 퇴직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고령기 비자발적 퇴직 이후의 삶에서부터 노동시장 이탈

을 의미하는 은퇴까지의 개인의 삶에 있어 비자발적 퇴직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 퇴직에 관심을 가지고, 비자발적 퇴직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은퇴는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닌 중·고령기 퇴직에서 시작된 일련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은퇴 연구는 이미 은퇴를 단절된 사건(event)이 아닌 과정(process)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의 은퇴 연구는 은퇴를 과정으로 보면서 은퇴와 은퇴 후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해 연구들(권문일, 1996; 방하남·신인철, 2011)에서 더 나아가 은퇴과정의 종단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그 유형화를 제시하는 연구들(박경숙, 2003; 지은정, 2006; 최문정, 2005; 최옥금, 2011; 홍백의·김혜연, 2010; 박경하, 2011)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50대 이후의 퇴직을 그대로 은퇴로 연결하거나, 은퇴에 대한 가정도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과 은퇴를 분리해서 그 과정을 보는 연구가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퇴직 이후에 노동시장에 다시 재진입하여 고령기를 보내다가 노동시장을 벗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비자발적 퇴직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로 윤윤규·박성재(2008)의 연구와 김종원(2011)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퇴직 이후 재취업 및 재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로서 연구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퇴직을 은퇴와 연계하여 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비자발적 퇴직과 은퇴를 연계해서 보는 연구로는 김태훈·박용현(201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실업을 경험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직 이후 일자리 경로(퇴직->재취업->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앞선 윤유규·박성재(2008)와 김종원(2011)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취업에서 다시 퇴직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지만, 연속과정으로 나타나는 은퇴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지 못한다.

위에서 제시된 은퇴관련 연구에서는 은퇴과정 중에서 그 선행사건에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고, 은퇴와 비자발적 퇴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중·고령기 퇴직 이후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할 때까지의 그 과정과 은퇴까지를 고려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고령기 개인의 퇴직경험과 그 사유는 이후의 노동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중·고령자 퇴직 자발성 여부가 퇴직 이후부터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은퇴까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먼저, 중·고령기 퇴직 이후 완전히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은퇴까지의 고용형태 변화를 통해 은퇴유형을 분석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중·고령기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퇴직 이후 노동시장 이탈까지의 은퇴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1-1]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1-2]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구성하는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1-3]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1-4]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구성하는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문제는 은퇴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과 관련한 연구 질문이다. 즉, 은퇴유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인 자발적 퇴직 집단과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2]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1] 자발적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2]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중·고령기에 퇴직을 경험한 사람이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퇴직 경험에 있어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며, 각 은퇴유형에 속한 개인의 특성을 이해를 도모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퇴직과 은퇴

1. 퇴직과 은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퇴직과 은퇴를 구분하여 다룸에 따라 그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은퇴(Retirement)란 사전적 의미로 연금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직장, 고용, 서비스 등을 영구적으로 벗어난 상태를 의미(Oxford English Dictionary, 2013)한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에서 다뤄지는 은퇴란 이러한 한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Fields & Mitchell(1984)의 연구에서 의하면 은퇴란 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주관적 정의, ② 노동참여를 중단하는 것 즉,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것, ③ 노동시간이나 급여가 이전의 수준보다 낮아지는 것, ④ 장기간 일하던 직업(the-main-employer)을 그만두는 것, 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⑥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 이후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은퇴는 일자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상태들을 의미한다.

Palmore et al.(1985)는 Fields & Mitchell(1984)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은퇴를 3가지로 재명명하고 있는데, ① 응답자의 판단에 따른 주관적 은퇴(Subjective Retirement), ②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전일제고용(full-time work)보다 덜 일할 때를 의미하는 객관적 은퇴(Objective Retirement), ③ 보다 자세한 구분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일한 노동시간에 기반 해서 일한 시간이 없으면 완전히 은퇴한 것(fully retired), 전일제 고용보다 덜 일했으면 부분적으로 은퇴한 것(Partially retired), 전일제 고용만큼 일했으면 은퇴하지 않은 것(Not retired)으로 구분하는 고용의 정도에 따른 은퇴(Amount of Employment)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Retirement'는 한국에서 퇴직으로 명명할

때도 있고, 은퇴로 명명할 때도 있다.

먼저,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에 주목하는 연구들에서는 은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권승·황규선, 2004; 김지경, 2005; 박경숙, 2003; 박경하, 2011; 손종칠, 2010; 이승원 외, 2008; 최문정, 2005; 최옥금, 2011; 한경혜, 2008).

위와 유사한 주제로 접근함에도 은퇴가 아닌 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홍백의·김혜연(2010)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노동력을 이탈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퇴직 경로로 제시하고 있다. 권문일(1996)은 앞선 Retirement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장(Career job)에서 벗어난 경우'를 퇴직으로 보고 있으며, 퇴직의 개념 정의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Retirement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은정(2006)의 연구에서도 권문일(1996)과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완전 퇴직·점진적 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퇴직과 은퇴의 사전적 의미를 구분해 보면,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남'을 의미하고,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3). 이 구분에서 'Retirement'는 퇴직과 은퇴가 가진 의미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직과 은퇴 모두 영어로 Retirement로 표기하여(능률한영사전, 2006), 그 구분이 더욱 모호하다.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 초점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단지 직장에서 물러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진행 할 필요는 있다.

위의 논의에서 제시했듯, 퇴직과 은퇴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의 관점에서 Retirement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퇴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은퇴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 퇴직과 은퇴의 사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방하남 외(2009)는 기업에서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나오는 단계를 '퇴직', 그리고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소득활동을 그만두는 단계를 '은퇴'로 구분하고, '퇴직'과 '은퇴' 사이를 부분 혹은 점진적 은퇴기간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기에 직장에서 벗어나 이들이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의 고용형태 변화를 분석함에 따라, 방하남 외(2009)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퇴직은 “직장(기업)에서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나오는 단계”로, 은퇴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상태, 즉 완전히 소득활동을 그만두는 단계”로 정의한다.

2. 과정으로서의 은퇴

전통적 은퇴 개념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회귀하지 않는 불가역적 사건을 의미했으나, 최근 은퇴과정 개념은 고령기에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박경하, 2011).

위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은퇴과정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이나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은퇴과정을 다르게 정의했고, 이에 따른 은퇴과정의 유형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은퇴과정의 구분은 대체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최종 경제활동상태까지의 변화를 기준으로 은퇴과정을 구분하고 이를 특정용어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Gustman & Steinmeier (1981)은 완전고용과 완전퇴직 사이를 은퇴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고령 근로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노동노력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직장을 통해 부분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노동경험을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로 개념화 한다.

Cahill et al.(2006)은 Gustman & Steinmeier(1981)와 유사하게 전일제 주 직장보다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시점부터가 은퇴과정으로 본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노동력에서 물러나기까지 하나 이상의 단기 혹은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직업을 가교직업(Bridge jobs)이라 한다. 따라서 가교직업이란 부분은퇴과정에서 전일제 주 직장과 완전한 노동력의 중단까지를 이어주는 직업을 의미한다.

은퇴과정을 부분적인 은퇴(partially retire)와 모호한 노동('blurring' of work)이라 표현한 Pampel & Hardy의 연구를 통해, Mutchler et al.,(1997)은 은퇴과정을 ‘모호한 이행(blurred transition)’으로 제시한다.

모호한 이행('blurred' transitions)은 은퇴에 따른 역할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 역할이 겹쳐지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은퇴과정의 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애노동이 길어지고 은퇴가 연장되는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연장노동생애(longer work life)에 초점을 두는 연구도 있다(Tang et al., 2013). 이들 연구에서는 65세 이후로 나타나는 고령자들의 노동참여를 두고 대상자들의 연장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은퇴과정을 점진적 은퇴(gradual retirement),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 그리고 은퇴역전(unretirement)[1] 등으로 구분한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은퇴과정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 시기에 대한 구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들과 같이 은퇴과정을 고령기에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박경하, 2011)라는 의미에 기반을 두고, 50대 이후의 중·고령자가 일자리에서 나온 '퇴직'시기에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가게 되는 '은퇴'까지의 과정을 은퇴과정으로 규정한다.

1) unretirement란 은퇴로부터 노동으로 돌아가는 역전행위로 구체적으로 완전 은퇴에서 전일고용으로 이동하거나, 완전 은퇴에서 파트타임고용이나 부분은퇴로, 부분은퇴에서 전일고용으로의 이동을 모두 unretirement라 정의한다(Maestas, 2004). unretirement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찾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은퇴역전'으로 표현한다.

제2절 한국에서의 퇴직과 은퇴: 비자발적 퇴출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재정의 투입이 생산가능연령대 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노인세대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 방안의 중심에 '활동적 노령화(Active Ageing)'가 있고 적정한 수준에서 고령자의 근로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장지연 외, 2008).

구체적으로, OECD(2006)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3가지 방안으로 3P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Population"전략으로 인구의 연령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책으로 가령 출산장려나 이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roductivity"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Participation"으로 노동공급을 최대한 동원화하여 경제적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방안인 노동자원을 더 많이 동원하는 것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 제시하며 고령화 시대에서 노동력 보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1991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기업의 정년연령은 크게 변함이 없고,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이라는 명목 하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고령 근로자들의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상시화 되고 있다(방하남 외, 2012; 지은정, 2011). 이에 따라 오히려 노동자의 퇴직은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강제된 노동시장 퇴장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이 만 53세로 나타났으며 50대에 그만둔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퇴직사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의 사유가 27.0%이고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퇴직한 고령자가 7.9%이다. 여기서 강제규정인 정년퇴직(10.7%)까지 더해지면 본인의 의

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고령자가 전체퇴직자의 1/3 수준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자들의 퇴직의 자발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실제 은퇴연령은 71.4세(2011년 기준)로 나타나는데(OECD, 2013), 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서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까지 약 18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50대부터 시작되는 퇴직 위험과 은퇴과정이 '강제된 비경활'이나 고용불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혹은 취업과 비취업의 명확한 경계를 전제로 한 노동 및 복지정책은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박경숙, 2003)을 인식해야 한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50대 초반에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의 완전한 이탈은 60대 중후반이 넘어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과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중·고령기는 자녀교육, 결혼 및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희망하지만 50대 초~중반에 퇴직하고 남은 근로생애 동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근로생애의 후반기를 보내는 것이다(지은정, 2011).

외국에서의 비자발적 퇴직 및 은퇴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서구 고령 노동자들 대부분은 은퇴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었으며 기업은 그들이 은퇴 연령에 달하면 퇴직시켰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른 나이에 노동력에서 밀려나오기도 했다(Hardy, 2002; Van & Henkens. 2007 재인용). 1980년대 연구인 Palmore et al.(1985)의 연구에 의하면, 정년, 건강, 직장문제 등이 비자발적 은퇴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비자발적 은퇴가 은퇴 전·후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이후, 서구에서 조기퇴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퇴가 개인의 선택 문제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강제된 퇴직(forced retirement) 혹은 비자발적 퇴직(involuntary retirement)이 드러나고 있다고 제시하며(Szinovacz & Davey, 2005),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직업이동이 소득 상실에 있어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축

적되어 나타난다고 한다(Malo & Muñoz-Bullón, 2008)

국외문헌에서 비자발적 은퇴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비자발적 은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거나(Dorn & Sousa-Poza, 2009; Szinovacz & Davey, 2005; Van Solinge & Henkens, 2007), 비자발적 은퇴 인식이 은퇴 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시하는 연구(Shultz et al., 1998) 등이 있다. 그리고 인식이 아닌 은퇴사유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비자발적 은퇴를 포함한 은퇴사유가 미치는 영향들을 밝힌 연구들로는 Palmore et al.(1985)와 Henretta et al.(1992)의 연구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자발적 퇴직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윤유규·박성재, 2008; 김종원, 2011; 김태훈·박용현, 2010; 한경혜, 2008[2]). 실증적으로 중·고령자의 비자발적 퇴직을 다룬 김태훈·박용현(2010)의 연구에서는 실직을 경험한 중·고령자들의 퇴직상태에서 재취업까지의 기간과 취업상태에서 실업까지 각각의 기간을 통해 중·고령 근로자의 과거 실직경험이 실직이후 일자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들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직자는 미취업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고령 실직자의 경우 새로운 직업 탐색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더욱 커지게 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은퇴를 위해 축적했던 재원의 감소가 더욱 크게 발생하여 근로기간이 더욱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실직(비자발적 퇴직)경험은 고령 근로자의 은퇴시기를 늦추고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는 불안정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실직을 경험한 고령 근로자는 취업상태로 오래 있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김종원(2011)과 윤윤규·박성재(2008)의 연구에서도 김태훈·박용현(2010)의 연구와 같이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비자발적 퇴직은 재취업률이 자발적 퇴직자보다 낮고, 재취업시 상용직이 될 확률도 낮으며 이에 따른 임금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비자발적 퇴직 이후 노동시장 이행경로들

2) 한경혜(2008)의 연구는 한국남녀의 은퇴과정 및 은퇴 후 경험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로써, 은퇴의 자발성 여부를 은퇴영향 변수로 사용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자발적으로 은퇴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뿐, 비자발성으로 인한 은퇴의 영향을 고찰하지는 않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에 있어 자발적 퇴직자들에 비해 비자발적 퇴직자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를 통해 비자발적 퇴직의 영향을 은퇴과정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김태훈·박용현(2010)의 연구는 중·고령기의 퇴직이 은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비자발적 퇴직의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은퇴과정이 어떻게 나타는지를 제시하지 못한다.

제3절 은퇴과정에 대한 문헌검토

중·고령기의 퇴직뿐만 아니라 재취업까지의 은퇴과정 요인을 제시했던 연구로는 권문일(1996), 방하남·신인철(2011)의 연구가 있다.

중·고령기의 퇴직에 관한 결정요인에 있어 권문일(1996)은 퇴직을 경제활동의 중단상태라는 정태적 시간이 아닌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장(Career job)으로부터 경제활동참가 중단에 이르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직 후 경제활동참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퇴직은 기업정년제[3], 기업규모와 같은 제도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퇴직 후 경제활동 참가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동에 대한 태도, 건강, 직업안정도, 대졸자녀수,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퇴직 후 경제활동참가결정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재산소득, 연금 등은 퇴직후 경제활동참가결정을 철회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했다.

방하남·신인철(2011)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과 퇴직 후 재취업의 과정을 연계하여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동학의 분석을 제시한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어지면서 퇴직이 늦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강한 고용안정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결과적으로 고용안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퇴직 이후의 재취업에 있어서는 과거 주된 일자리의 영향보다는 가구 내 경제적 필요(가구부채)가 재취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위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기업정년제나 기업규모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기 생애 주

3) 기업정년제여부와 기업규모의 경우,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 직접조사를 통해 얻은 변수로서 한국고용패널에서는 기업정년제여부 변수가 없는 관계로 기업정년제여부 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개인의 선택적 요인보다는 기업에 의한 비자발적 요인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퇴과정 요인을 분석하는데서 더 나아가 은퇴과정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있다(박경숙, 2003; 박경하, 2011; 지은정, 2006; 최문정, 2005; 최옥금, 2011; 홍백의·김혜연, 2010).

먼저,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유형을 미리 설정하고 은퇴자들의 속성에 따라 유형화를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은퇴유형을 먼저 구분한 뒤, 구분된 은퇴유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지은정, 2006; 신동균, 2009; 최옥금, 2011)

지은정(200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완전은퇴와 점진적 은퇴로 구분하고 그 현황과 결정요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는 점진적 은퇴자로 관찰되었으며,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은퇴자의 98% 역시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진적 은퇴여부에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 소득, 종사상 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석상훈(2011) 역시 지은정(2006)과 유사하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지(완전은퇴), 가교일자리에서 은퇴(점진적 은퇴)하는지를 구분한다. 그의 연구는 은퇴 유형에 따라 은퇴 후 소득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는데, 완전은퇴할 경우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균(2009)은 은퇴상태를 전일제 근로, 부분은퇴, 완전은퇴로 구분한다. 그리고 한국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한 뒤, 그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한다. 개인이 점진적 은퇴를 경험할 확률을 약 50~60%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점진적 은퇴의 경향이 자영자와 임금근로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은퇴의 선택에는 경제적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최옥금(2011)은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생애 주된 일자리 유지와 가교일자리, 그리고 비취업 세 가지로 구분했으며, 유형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 건강, 가구의 경제적 상황(소득과 자산)이 나타

났는데, 이는 지은정(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과정 유형화의 탐색적 연구로써 박경숙(2003)은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및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분석하여 동일직업지속형, 직업이동형, 완전비취업형, 취업-비취업 반복형 4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성별이나 건강과 같은 개인적 요소, 가구주 여부 및 가구소득과 같은 가족 요소[4], 과거 직업력,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새롭게 유형화를 하는 연구들로, 이러한 연구는 실제적으로 은퇴과정을 개인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데이터를 통해 유형화를 한 연구로써 홍백의, 김혜연(2010)과 박경하(2011)의 연구가 있다.

홍백의·김혜연(2010)은 우리나라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퇴직 경로의 유형을 노동시장이탈형, 조기퇴직자형Ⅰ, 조기퇴직자형Ⅱ, 정규퇴직자영자형, 정규퇴직근로자형, 지속자영자형, 지속근로자형, 장기지속근로자형 8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들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결정하는 요인들로 교육수준과 출생cohort, 50세 당시 직종이 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하(2011)는 우리나라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경제활동상태와 복지상태에 따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가지로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각 유형의 특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은퇴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금수급여부, 교육수준, 주된 일자리의 지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퇴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분절적 사건으로 다뤄왔던 은퇴를 과정으로 접근하여 은퇴과정에 대한 결정 요인과 그 유형화들을 제시하여 은퇴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은퇴과정의

4)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소를 따로 검토하지 않고, 경제적 요인이라 볼 수 있는 가구소득을 가족요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경제적 요인에 포함시킨다.

요인이나 그 유형을 밝힘에 있어 은퇴까지의 선행사건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에 대한 고찰이 거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50세 초반부터 시작되는 중·고령자들의 퇴직은 한국에서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중·고령자들의 노동생애가 변화하는 은퇴과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에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이 은퇴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퇴직 이후의 중·고령자들의 고용형태 변화과정 은퇴유형이 퇴직사유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고령기 퇴직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경로를 유형화하고 각 퇴직 집단에서 그 유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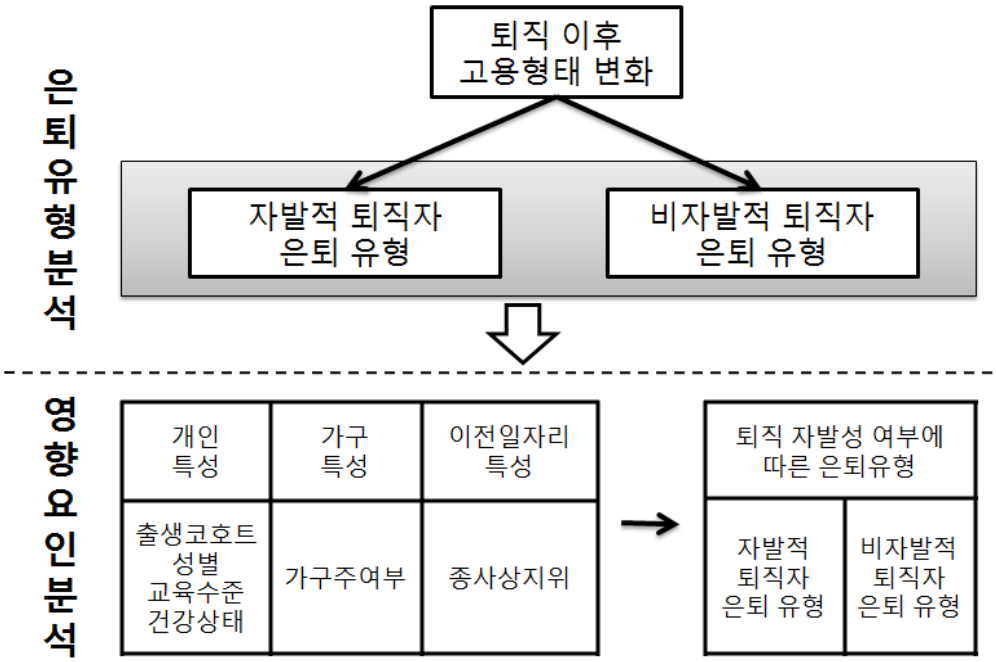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은퇴과정과 그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 특성, 가구 특성, 경제적 특성, 이전 일자리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건강, 교육수준, 출생코호트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으로는 가구주 여부, 대졸자녀수, 배우자와의 관계가 유의미했으며, 경제적 특성에서는 가구소득, 보유자산, 연금수급여부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전 일자리 특성에는 기업규모, 퇴직당시 직종 혹은 주된 일자리 지위, 기업정년제, 직장근속기간 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은퇴과정이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들에서 은퇴과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가구주여부, 경제적 상황, 과거 직업력 등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그런데, 변수를 선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연구의 특이성으로 본 연구는 개인이 퇴직하여 은퇴할 때까지의 은퇴과정을 분석함에 따라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직 이후 재취업하게 되는 요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하는 퇴직 이후 고용형태 변화의 경우 퇴직 경험 이후 은퇴까지의 과정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경험을 담고 있는 회고력 자료이다. 그러나 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개인적 특성, 가구특성 등의 정보는 과거의 정보가 아닌 조사시점 당시의 정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

가구 특성, 이전 일자리 특성을 분석변수로 사용하되, 회고력 데이터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사시점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은퇴유형과 현재 상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중·고령기에 퇴직을 경험한 퇴직자들을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유형을 분석한다. 은퇴유형 분석은 전체퇴직자의 은퇴유형을 먼저 분석 한 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분석한 은퇴유형을 바탕으로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이 은퇴유형 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각각 비교분석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제2절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고령기(50세~65세)에 퇴직을 경험한 사람이 분석대상이 된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분석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이 퇴직 이후부터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이탈하게 되는 은퇴까지의 고용상태 변화를 통해 은퇴유형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분석된 은퇴유형은 다시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중·고령자를 정의함에 있어 그 기준이 연구들마다 다양하게 적용된다. 45세 이상을 기준으로 중·고령자를 구분하거나(김태훈·박용현, 2010; 박경하, 2011; 손종칠, 2010; 홍백의·김혜연, 2010), 50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보는 연구들(방하남·신인철, 2011; 이민경, 2004; 지은정, 2006)도 있으며, 5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하는 연구(최옥금, 2011)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여 경로연금 수혜자격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완전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는 2012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준고령자 기준에 따라 중·고령자를 5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노인복지법 및 연금 수급시기[5]가 제시하는 고령자 기준인 65세 이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50세에서 65세 사이에 퇴직을 경험한 사람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중·고령자를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로 구분한 뒤, 이들의 과거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 이후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때까지의 고용상태를 종단자료로 구축하여 은퇴유형분석에 사용한다.

---

5) 국민연금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승시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급여지급연령에 해당한다(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2013년 11월 12일 검색).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1차(1998년)부터 13차(2010년)까지의 개인자료와 가구 자료, 13차년도의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를 이용한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 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 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사용되는 경제적 특성과 가구 특성에 관련한 변수를 KLIPS의 가구 자료에서 활용가능하며, 개인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는 개인 자료에서 활용가능하다.

회고적(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는 기업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 시기 및 퇴직 시기, 업종과 직종,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 개인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직업력 자료에서는 타 패널 데이터와 달리 퇴직 사유에 있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제3절 변수 정의와 측정

1. 은퇴유형 분석

은퇴유형 분석은 고용형태의 종단자료를 통해 은퇴유형을 도출하는 분석으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은퇴유형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퇴직 자발성 여부 따른 은퇴유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은퇴유형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퇴직 자발성 여부 변수와 고용형태 변화 변수가 된다.

1) 퇴직 자발성 여부(자발적·비자발적 퇴직)

기존의 연구자들은 비자발적 은퇴의 개념을 건강문제나 조직축소(organizational downsizing)에 한정하여 가정했으나, Van Solinge & Henkens(2007)의 연구에서는 제약적 환경, 고령 노동자의 은퇴 선호, 시기(timing), 사회적 관계(social embeddedness)들이 모두 비자발 혹은 자발적 은퇴인지에 대한 개념을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Szinovacz & Davey(2005)에 의하면 퇴직결정은 선택(choice)과 동기(motivation)의 요소에서 나온다고 한다. 선택은 환경(circumstance)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장애와 노동시장 제약을 의미하고 이것들은 고령 노동자들이 직장에 남고자 하는 능력을 제거하게 된다. 동기는 노동자의 은퇴성향을 의미하고, 은퇴의 비용편익비(benefit-costs ratio)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자발성(voluntariness)은 은퇴자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선택, 동기, 은퇴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된 통제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지된 통제는 선택과 다르며, 노동자의 의도인지 환경적 가능성(contingency)인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를 일컫는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비자발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성의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직업력 자료에서 '이전 직장에서 퇴직사유(자발/비자발)'변

수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발·비자발 퇴직을 구분한다.

2) 고용형태 변화

본 연구는 은퇴유형분석과 영향요인 분석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은퇴유형분석에 있어서는 은퇴유형이 결과가 되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되는 변수가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시계열 변수가 된다. 이러한 시계열 변수는 종사상지위 변수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자료로 구축한다.

따라서 은퇴유형분석에서는 종사상지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에서는 종사상지위를 ①상용직, ②임시직, ③일용직, ④자영업자, ⑤무급가족 종사자와 같이 5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퇴직상태까지 포함하여 6가지의 범주의 고용형태가 종속변수가 된다.

3)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데이터에서 퇴직 당시의 경제적 특성을 제시하지 않으며, 조사된 시점(13차 년도, 2010년)의 경제적 특성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특성은 은퇴유형에 따라 경제적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된 은퇴유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은 인과관계가 아닌, 은퇴유형과 현재 경제적 상황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접근한다.

경제적 특성에는 가구소득, 보유자산 정보가 포함된다. 가구소득의 경우, 지난 한 해(2009년)의 가구소득을 조사한 것으로 한국노동패널에서 가구총소득을 산출할 때는 가구조사 자료에서 가구소득의 각각의 항목인 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를 분석에 포함한다. 보유자산의 경우, 자산과 관련된 항목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가구조사 자료에서 부동산 관련변수인 '거주주택 외 부동산', '부동산 타인 임대', '부동산 임차' 변수들과 금융자산 관련변수인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 변수를 모두 합해서 보유자산을 산출한다.

2. 은퇴유형 영향요인 분석

연구의 두 번째 분석은 은퇴유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구성되며, 종속변수는 은퇴유형이 된다.

1) 독립변수

연구의 독립변수는 점진적 은퇴과정이나 은퇴과정 유형화 선행연구들에서 은퇴과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개인특성, 가구특성, 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을 분석에 사용한다.

(1) 개인특성

개인특성은 개인조사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 건강, 교육수준 변수 정보를 이용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는 퇴직 시점의 정보와 비교했을 때,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건강변수의 경우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다뤄진다(박경숙, 2003; 지은정, 2006; 최옥금, 2011). 퇴직 경험과 조사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퇴직 시점이 이미 50대 이후의 중·고령기이기 때문에 건강수준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은퇴유형과 현재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시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건강 변수 정보를 본 연구에서 포함한다.

성별은 '성별'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수준은 '학력 이수여부'에서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로 구분되는 '교육수준' 변수를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연령의 경우, 연령 및 출생코호트가 유의미했던 선행연구(지은정, 2006; 홍백의·김혜연, 2010; 최옥금, 2011)에 따라 출생연도를 의미하는 '생년' 변수를 사용하여 출생코호트를 나타낸다. 출생코호트는 시기별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은퇴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상황을 반영하는 출생코호트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따라서 1940년대 이전, 1940년대, 1950년대 이후로 출생코호트를 구분하여 연구에 적용한다.

건강은 '현재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나쁨, 보통, 좋음과 같이 범주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 가구특성

가구특성은 가구주 여부가 포함된다. 가구주여부는 개인조사 자료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사용하며, 응답자가 가구주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3) 이전 일자리 특성

이전 일자리 특성에서는 퇴직당시 직종 혹은 주된 일자리 지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 당시 일자리의 지위를 일자리 특성 변수로 설정한다. 퇴직 당시 일자리 지위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종사상지위' 변수를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로 구분함에 따라 이러한 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종속변수: 은퇴유형

은퇴유형은 은퇴유형 분석에서 도출된 은퇴유형을 사용한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대해서 각각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제4절 분석방법

1. 집단중심추세모형

본 연구에서 은퇴유형화를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 GTM)이다. 노동 과정 또는 노동 상태의 변화를 분석할 때 구분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 전환(transition)과 경로 혹은 추세(trajectory)이다. 전환은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단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의 발생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반면에 경로(추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분석 기간 동안 노동과정의 변화를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김혜연, 2010). 퇴직 이후의 은퇴경로 즉, 고용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인의 노동 경로(trajectory)를 모델화 하는 연구방법인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50세~65세 사이에 퇴직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이탈하게 될 때까지의 고용상태를 종단상태로 구축하여 퇴직 집단중심추세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은 개념적으로 개인 i가 시간 t에서 집단 j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모델에서 출발한다. 추정된 모수는 경로의의 모양을 추정하게 되며, 이 경로는 각 j 집단에서 개인 i의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 y의 확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고용상태는 퇴직을 포함하여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6개의 범주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서열변수[6]에서는 The censored normal(CNORM)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Jones et al., 2001). CNORM 모델에 적용하여 집단을 유형화 할 때 종속변수는 퇴직 이후 시간의 경과(retire로 표기)를 2차 함수까지 설정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게 되며, 그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다.

---

6) 종사상지위가 서열변수냐 아니냐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집단중심추세모형에서의 분석은 관찰변수가 이분 자료인 경우 LOGIT(logistic) model.을 적용하며, 관찰변수가 세 가지 분포를 보이는 경우 ZIP(zero-inflated Poisson) model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주어진 관찰변수가 척도데이터와 같이 연속형일 경우 CNORM(censored nomal) model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종사상지위 변수는 세 가지 이상의 분포를 보임에 따라 서열변수로 간주하여 CNORM model을 적용하였다.

$$y_{it}^{*} = \beta^{j_0} + \beta_1^j retire_{it} + \beta_2^j retire_{it}^2 + \varepsilon_{it}$$ <수식 1>

집단중심추세모형(GTM)은 Nagin 등(Jones, Nagin & Roeder, 2001; Nagin, 1999)에 의해 개발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된 종단자료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통계적 방법으로 전체 모집단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의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Nagin, 2005; 홍백의·김혜연, 2010 재인용).

유형화에 있어 모델은 다음의 과정에 따른 특수한 우도함수에 의해 도출된다.

$$P(Y_i) = \sum_{j}^{J} \pi_j P^j(Y_i)$$ <수식 2>

시간조건하에서 $P^j(Y_i)$는 j그룹에 속한 구성원 i의 T(기간)동안의 종단적 사건(Y_i)의 확률이며, π_j는 무작위로 추출된 모집단 구성원이 j집단에 속할 확률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수식 2>의 $P(Y_i)$는 개인 i의 행동측정을 통한 종단적 사건 Y_i의 비조건적 확률이다. 즉, 개인i가 특정 집단에 소속될 확률과 특정집단 j에 속한 구성원들의 확률의 곱의 J집단에 걸친 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 2>를 Nagin은 "finite mixture model"이라 한다.

이 모델은 모수가 다변수의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에서 추출된 모집단에 속한 개인 수준의 궤적의 혼합(mixture)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수식 3>에서의 p^j는 j그룹에 속한 구성원인 y_{it}의 확률밀도함수이며 $P^j(Y_i)$는 집단 j에 속하는 개인의 t시점에서의 확률밀도함수의 T기간 동안의 합이다.

$$P^{j}(Y_i) = \prod^{T} p^{j}(y_{it}) \qquad \text{<수식 3>}$$

위와 같은 우도함수를 통해 집단중심추세모형은 시간에 따른 행동유형을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궤적의 형태를 추적하고, 집단 수와 자료와의 최적의 적합도를 갖는 집단 수를 검증한다. 자료에 나타난 개인들의 사건궤적 내용을 가장 잘 묘사하는 최종모델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통계치를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

BIC는 alternative model(더 복잡한 모델)의 BIC가 null model(더 단순한 모델)의 BIC보다 작게 나타나게 되는 기준에 따라서 BIC의 변화값을 통해 최종궤적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집단수를 늘려감에 따라 $2(\triangle BIC)$를 기준으로 최종모형을 결정한다.

<표 1> 은퇴유형 모형적합도 기준

$2\triangle BIC$	H_0(영모형)을 기각하는 정도
0 to 2	받아들일 수 없음
2 to 6	긍정적임
6 to 10	강한 긍정
>10	매우 강한 긍정

자료: Jones et al.(2001)에서 수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 최종모형에 대해서는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통해 각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가장 적합한 유형에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Nagin, 1999).

사후확률은 $\hat{P}(j|Y_i)$로 표기할 수 있으며, 그룹 j에 속한 각 개인 i의 멤버십의 확률을 개인의 종단적 행동 패턴(Y_i)에 기반해서 계산한다. 아래의 <수식 4>에서 $\hat{P}(Y_i|j)$는 j에 속하는 멤버십 주어진 관찰되는 i의 실제 행동궤적(Y_i)의 추정된 확률이며, $\hat{\pi}_j$ 는 그룹 j에 속한 구성원의 추정된 비율이

된다.

$$\hat{P}(j|Y_i) = \frac{\hat{P}(Y_i|j)\hat{\pi}_j}{\sum_j \hat{P}(Y_i|j)\hat{\pi}_j} \qquad \text{<수식 4>}$$

사후확률은 모형추정을 통해 함께 도출되며, 모형 전체의 사후확률은 각 개인의 도출된 사후확률을 평균하여 확인한다.

실제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에서 PROC TRAJ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도출된 은퇴유형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비연속 변수 또는 범주형 범수 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라는 추정방법을 적용한다. 최대우도법은 한마디로 가장 큰 우도(likelihood)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우도(likelihood)란 어떤 모집단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때 그 가능성은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를 이루게 되고 이 분포와 독립변수들의 값을 이용하여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 조합을 찾아내면 바로 그 조합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최적의 회귀식이 되는 것이다(Scott R. Eliason, 1993; 김태근, 2006 재인용). 이때의 로지스틱 값에 대한 선형식은 다음의 <수식 5>와 같다.

$$\log\left(\frac{p}{1-p}\right) = a + b_1 x_1 + \ldots + b_k x_k \qquad \text{<수식 5>}$$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순한 확장이다. 종속변수가 셋 이상으로의 배타적 이동경로로 정의될 수 있을 경우 각 범주로의 이동확률(odds ratio)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계수를 하나의 모형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종류가 항상 3가지 이상이므로, 승산(odds)를 정의할 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특정 사건과 대비시킨다. 이 특정사건을 기준(reference)사건이라고 한다. 기준이 D라면 A와 D, B와 D, C와 D를 각각 대비시키는 식이 필요하다. 다항 로지스틱의 선형식은 위의 <수식 6>과 같이 나타나며, A,B,C,D의 예를 이 식에 적용시키면, J는 A, B 또는 C가 되고 싶은 R은 기준인 D가 된다(홍세희, 2005).

$$\ln\left(\frac{P_J}{P_R}\right) = b_{J0} + b_{J1} X_{J1} + b_{J2} X_{J2} + \ldots + b_{Jk} X_{Jk} \qquad \text{<수식 6>}$$

은퇴유형에 대한 영향요인분석에서 은퇴유형의 경우, 분석 결과 그 유형의 수가 3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 은퇴유형 분석결과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 13차(2010)년도 미취업자 중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서, 직업력(Work History)자료에서 50세에서 65세 사이에 퇴직을 경험한 개인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추출된 대상은 1,375명이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먼저, 분석대상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47.85%, 여성이 52.15%로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 출생 시기는 약 1943년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만 67.4세 정도이다. 이 중에서 1940년대에 출생한 사람이 42.40%로 가장 많았고, 1930년대가 28.80%, 1950년대가 21.45%를 차지했다. 그리고 1930년대 이전, 1960년대 출생인 대상이 각각 6.91%, 0.44%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32.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20.15%, 무학이 18.04%, 중학교 졸업이 17.09%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년제와 4년제를 포함한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대상은 12.07%를 차지했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매우 좋음과 좋은 편) 비율이 24.43%, 보통인 사람이 33.96%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나쁜 편과 매우 나쁨)고 응답한 사람이 41.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의 가구특성 중에서 가구주 여부를 살펴보면, 가구주인 경우가 65.02%로 비가구주인 경우(34.98%)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퇴직자발성 여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34.04%)한 사람보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46.8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퇴직 당시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38.3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일용직(28.21%), 자영업자(22.67%), 무급가족종사자(10.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비율
개인 특성	성별	남성	658	47.85
		여성	717	52.15
	출생 시기	1930년 이전	95	6.91
		1930년대	396	28.80
		1940년대	583	42.40
		1950년대	295	21.45
		1960년대	6	0.44
		평균	1942.6	
	교육수준	무학	248	18.04
		초등학교 졸	449	32.65
		중학교 졸	235	17.09
		고등학교 졸	277	20.15
		2년제 대학 졸	44	3.20
		4년제 대학 졸	106	7.71
		석사 졸	15	1.09
		박사 졸	1	0.07
	건강상태	매우 좋음	27	1.96
		좋은 편	309	22.47
		보통	467	33.96
		나쁜 편	444	32.29
		매우 나쁨	128	9.31
가구 특성	가구주 여부	가구주	894	65.02
		비가구주	481	34.98
	주거형태	자가	993	77.22
		전세	186	13.53
		월세	141	10.25
		기타	55	4.00
이전 일자리 특성	퇴직자발성	자발	644	46.83
		비자발	468	34.04
		구분없음	263	19.13
	(퇴직당시) 종사상지위	상용직	526	38.34
		임시·일용직	387	28.21
		자영업자	311	22.67
		무급가족종사자	148	10.79

제2절 전체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여기서는 연구대상의 은퇴유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은퇴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50세에서 65세 사이에 퇴직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의 직업력 자료에서 퇴직 이전 1년부터 퇴직 이후 15년까지의 종사상지위 변화[7]의 종단자료를 구축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복잡한 모델(alternative model)의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이 단순한 모델(null model)의 BIC보다 더 작다는 것을 가정하여 집단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BIC 값을 기준으로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Jones et. al., 2001). 기존연구에서는 영가설(H_0)을 기각하는 정도에 대한 $2\Delta BIC$값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최적모형을 설정했다(김혜연, 2010; 민현주, 2012; 이상문, 2011; 이세례, 2012; 전선영, 2013; 정익중, 2009; 홍백의·김혜연, 2010). 본 연구에서는 퇴직 자발성에 따른 은퇴유형을 분석함에 따라 퇴직을 경험한 이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 한 결과 이미 중·고령자인 대상자들이 퇴직 이후의 유형이 크게 분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한국적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2\Delta BIC$기준에서 매우 강한 긍정에 해당하는 $2\Delta BIC$값이 10 이상인 집단의 유형을 선택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표 1>참조).

1. 전체퇴직자 은퇴유형

전체 퇴직자를 기준으로 집단의 수를 늘려감에 따라 변화하는 BIC값은 2집단까지는 감소하지만, 3집단부터는 3집단 내에서 2그룹이 3그룹으로 수렴하게 되어 BIC값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2집단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

7) 퇴직 이후 15년까지의 종단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도출된 분석대상 중에서 가장 늦게 은퇴하게 되는 사람의 은퇴시기가 퇴직 이후 15년이었음에 따라 일괄적으로 15년의 종단자료를 구축하였다.

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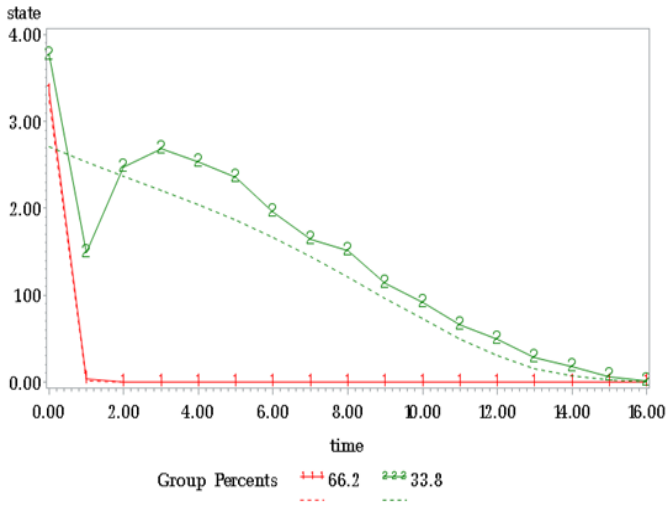
전체 퇴직자의 2집단 모형의 BIC값과 $2(\triangle BIC)$는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선택된 최적모형에서 1집단은 66.2%, 2집단은 33.8%의 비율을 차지한다.

<표 3> 전체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모형	BIC	$2(\Delta BIC)$	1집단	2집단	3집단
1집단	-16818.83		100%		
2집단	**-13308.19**	**7021.28**	**66.2%**	**33.8%**	
3집단	-13329.27	-42.16	66.2%	0%	33.8%

주) $2(\Delta BIC)$: $2\times(BIC_{k+1}-BIC_k)$

집단중심추세모형 분석 절차를 통해 도출된 전체 중.고령자 퇴직 이후 발달궤적 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세로범주의 state는 종사상지위를 나타낸 것이고, 가로범주의 time은 퇴직 이후의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state는 state 0일 때 퇴직, state 1이 무급가족종사자, state 2가 자영업, state 3이 일용직, state 4가 임시직, state 5가 상용직이다. 그림에서는 전체 집단의 수렴현상으로 인해 집단의 평균점에서 시작함에 따라 [그림 2]의 전체 퇴직자 2집단 모형에서는 state 5가 드러나 있지 않다. time은 time 0이 퇴직 1년 전이고 time 1이 퇴직시점이 된다. 따라서 time 16은 퇴직 이후 15년이 된다.



[그림 2] 전체 퇴직자 2집단 모형

1집단의 선형을 살펴보면, 퇴직 이후 그대로 state 0의 상태 즉, 퇴직상태가 지속된다. 2집단의 경우 time 1(퇴직 시점) 이후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퇴직자 은퇴유형은 퇴직경험이 바로 은퇴로 연결되는 집단과 퇴직경험 이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가 은퇴로 연결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들 집단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퇴직이 은퇴로 연결되는 집단을 **"퇴직-은퇴 동일형"**이라 명명하고, 퇴직과 은퇴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집단을 **"퇴직-은퇴 분리형"**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분석대상은 퇴직 전체 집단을 의미함에 따라 전체 퇴직자의 최적모형에서 1집단은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이 되고, 2집단은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이 된다.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 이후 그대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은퇴로 연결되는 모습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퇴직자 중 66.2%를 차지한다.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여 퇴직에서 은퇴까지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퇴직자 중 33.8%를 차지한다. 이들은 time 3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여 이후로

time 16까지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전체 퇴직자의 은퇴모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50대 이후의 중·고령기 퇴직경험 이후 은퇴로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4>는 각 집단의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후확률은 집단 j에 속한 개인 i가 j 그룹에 속할 확률을 개인의 종단적 행동패턴에 기반해 계산하는 것으로, 사후확률계산은 개인이 배치된 발달궤적집단이 그들의 행동과 최적배치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Nagin 1999). 사후확률 계산은 집단중심추세모형분석을 통해 집단모형이 산출되면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도 함께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각 개인들의 사후확률을 평균한 것이 아래 <표 4>의 결과이다.

집단별 사후확률에 의하면 할당된 집단과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이 10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각 집단을 잘 대표하게 유형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 전체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할당된 집단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퇴직-은퇴 동일형	퇴직-은퇴 분리형
퇴직-은퇴 동일형	1.00	0.00
퇴직-은퇴 분리형	0.00	1.00

2. 전체퇴직자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다음 <표 5>는 발달궤적 최적모형의 각 집단들이 시간변화에 따라 종사상지위가 어떤 비율로 변화되는지를 나타낸 표이다. 이러한 표를 통해, 발달궤적 모형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실제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표 5> 다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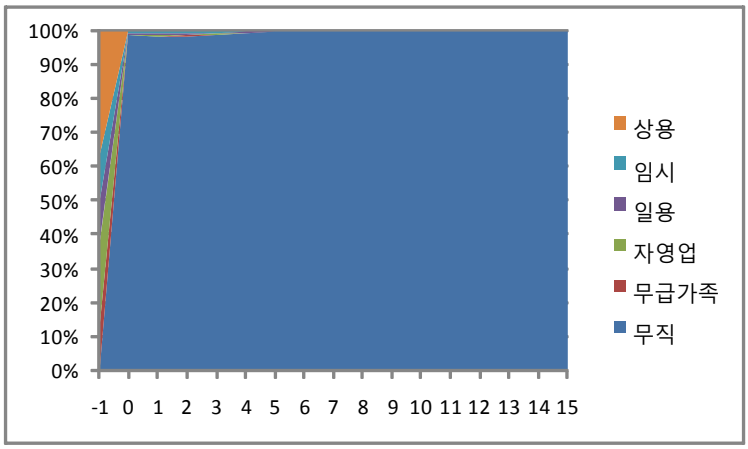
나오는 [그림 3]과 [그림 4]는 <표 5>에서 나타나는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먼저,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을 보면, 퇴직(0) 이후 거의 모두 무직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은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과는 달리 퇴직(0)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이후의 직종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 가장 많은 고용형태로 상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차례대로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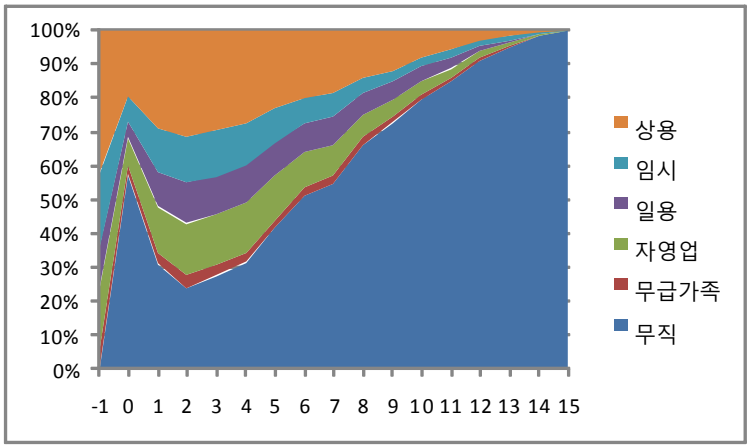
<표 5> 전체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	무직	2	0.21	98.63	98.21	98.32	98.84	99.16	100										
	무급가족	124	13.03	0.11	0.11	0.32	0.11	0.11											
	자영	234	24.58	0.32	0.32	0.32	0.21	0.11											
	일용	115	12.08	0.42	0.74	0.32	0.32	0.21											
	임시	129	13.55	0.42	0.32	0.42	0.42	0.21											
	상용	348	36.55	0.11	0.32	0.32	0.11	0.21											
	계	952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	무직	1	0.24	57.21	30.97	23.88	27.42	31.44	41.61	51.06	54.37	65.72	72.58	79.43	84.63	90.78	94.8	98.11	99.76
	무급가족	24	5.67	2.60	3.07	3.78	3.31	2.60	2.13	2.36	2.60	2.60	1.89	1.42	0.95	0.71	0.24		
	자영	77	18.2	8.27	13.71	15.13	14.89	15.13	13.24	10.64	8.98	6.38	4.96	4.02	2.84	1.89	1.18	0.24	
	일용	50	11.82	4.73	10.40	12.29	11.11	11.11	9.69	8.27	8.51	6.38	5.20	4.26	3.31	1.65	0.24	0.47	
	임시	93	21.99	7.33	12.77	13.24	13.71	12.29	10.17	7.33	6.86	4.49	3.07	2.60	2.60	1.89	1.65	0.71	
	상용	178	42.08	19.86	29.08	31.68	29.55	27.42	23.17	20.33	18.68	14.42	12.29	8.27	5.67	3.07	1.89	0.47	0.24
	계	423																	



[그림 3]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4]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3. 전체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퇴직자의 최적모형으로 선택된 은퇴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6>에서 제시하였다.

자발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퇴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동일함에 따라 설명을 생략한다.

[전체 퇴직 은퇴-동일형]을 살펴보면, 여성이 53.36%이고 남성이 46.64%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에서는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38.6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1940년대(36.66%), 1950년대 이후(24.89%)의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나쁨이 43.1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33.09%), 좋음(23.7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32.56%), 고등학교 졸업(21.01%), 무학(18.38%), 중학교 졸업(16.39%), 대학교 이상(11.66%)의 차례를 보인다. 가구주는 61.55%이며,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이 36.63%로 가장 높았다.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과 달리 여성(49.41%)보다 남성(50.59%)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코호트에 있어서도 1940년대 이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과는 달리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55.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40년대 이전(29.55%), 1950년대 이후(15.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나쁨(38.06%), 보통(35.93%), 좋음(26%)으로 나타나,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32.86%)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과 같으나, 그 순서와 비율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18.68%), 고등학교 졸업(18.20%), 무학(17.26%), 대학교 이상(13%)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과는 차이가 있다. 가구주는 72.81%이며,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에서는 상용직이 4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전체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퇴직자		
		모형 전체*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
성별	남성	47.85	46.64	50.59
	여성	52.15	53.36	49.41
출생 코호트	1940년대 이전	35.71	38.45	29.55
	1940년대	42.40	36.66	55.32
	1950년대 이후	21.89	24.89	15.13
건강	좋음	24.44	23.74	26.00
	보통	33.96	33.09	35.93
	나쁨	41.60	43.17	38.06
교육 수준	무학	18.04	18.38	17.26
	초등학교 졸	32.65	32.56	32.86
	중학교 졸	17.09	16.39	18.68
	고등학교 졸	20.15	21.01	18.20
	대학교 이상	12.07	11.66	13.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65.02	61.55	72.81
	비가구주	34.98	38.45	27.19
(퇴직 당시) 종사상 지위	상용직	38.34	36.63	42.18
	임시·일용직	28.21	25.69	33.89
	자영업자	22.67	24.63	18.25
	무급가족 종사자	10.79	13.05	5.69

주) *은 분석대상 전체에 해당하며,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동일하다.

4. 전체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에서는 가구총소득과 순가구자산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이 은퇴상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소득을 제외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퇴직 자발성에 관계없이 분석대상 전체에 해당하는 전체 퇴직자의 경제적 특성을 제시한 <표 7>에서 가구총소득은 2663.4만원이고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은 1241.2만원, 순가구자산은 7785.7만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의 경제적 특성(가구총소득: 2765.7만원, 가구총소득-근로소득: 1276.9만원, 순가구자산: 8011.5만원)이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의 경제적 특성(가구총소득: 2432.9만원, 가구총소득-근로소득: 1159.6만원, 순가구자산: 7286만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전체 퇴직자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전체 퇴직자		
	모형 전체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
소득			
개인총소득	1579.8	1621.9	1485
근로소득	2684.8	2877.7	2287.9
금융소득	363..2	331	458.3
부동산소득	1547.8	1356.1	2144.5
사회보험	744.4	873.9	559.1
이전소득	458.7	448.8	480.9
기타	1839.7	2181.3	1032.3
가구총소득	2663.4	2765.7	2432.9
가구총소득-근로소득	1241.2	1276.9	1159.6
자산			
부동산자산	20147.3	20307.7	19709.3
금융자산	3839.2	3965.6	3728.4
가구총자산	13451.6	13986	12187.1
가구부채	8100.4	9162.6	5794.1
순가구자산	7785.7	8011.5	7286

제3절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여기서는 앞서 '제2절 전체퇴직자 은퇴유형 분석'에서 분석한 전체 퇴직자를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제시한다.

1.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난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은 3집단까지 BIC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집단이 되었을 때 BIC값이 증가하여 4집단 모형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자발 퇴직					
모형	BIC	$2(\Delta 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1집단	-5203.94		100%			
2집단	-4045.21	2317.46	77.3%	22.7%		
3집단	**-3857.12**	**376.18**	**76.8%**	**14.0%**	**9.2%**	
4집단	-3934.70	-155.16	76.8%	0.0%	7.9%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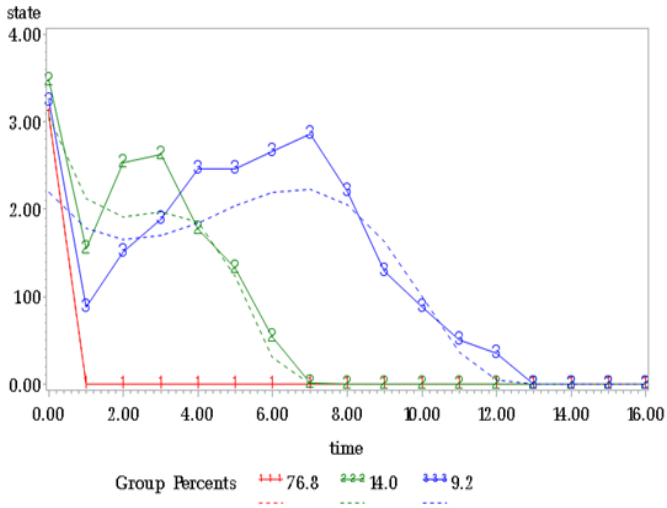
주) $2(\Delta BIC)$: $2\times(BIC_{k+1}-BIC_k)$

자발적 퇴직자 최적 모형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최적 선택모형인 3집단 모형에서는 퇴직에서 은퇴로 바로 연결되는 1집단의 비율이 76.8%[8]를 차지했으며,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2집단과 3집단으로 나타났다. 2집단의 경우, 퇴직경험 이후 노동참여 비율이 증가하다 그

8) 퇴직자발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가 구분되면서, 퇴직자발성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는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퇴직자보다 퇴직자발성을 구분한 퇴직자들에 비해 퇴직-은퇴 동일형(1집단)이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집단은 2집단에 비해 노동시장 재진입 증가가 보다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하게 되는 시점도 더 늦은 시점에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은 전체 퇴직자 은퇴유형에서 나타났던 퇴직-은퇴 동일형과 퇴직-은퇴 분리형에 더해서 3집단이 2집단에 비해 퇴직 이후 은퇴까지의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은퇴 분리형에 해당하는 2집단과 3집단을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2집단),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3집단)으로, 나머지 1집단은**"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 전체 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time 3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고 time 3부터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time 7이 되면 모두 은퇴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자발적 퇴직자 중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자발적 퇴직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 이후 time 7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여 time 13이 되면 모두 퇴직하는 형태를 보

인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은 <표 9>와 같이 각 집단 모두 집단별 사후확률에서 전체적으로 99% 이상의 높은 확률을 보임에 따라 그들의 행동패턴에 잘 부합하는 집단에 종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할당된 집단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3집단
1집단	1.00	0.00	0.00
2집단	0.00	0.99	0.01
3집단	0.00	0.01	0.99

2.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전체 자발 퇴직자의 최적모형으로 선택된 세 집단인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시간에 따른 퇴직 이후 종사상지위의 변화는 아래 <표 10>, [그림 6], [그림 7], [그림 8]과 같이 나타난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을 보면, 전체 퇴직자의 퇴직-은퇴 동일형과 같이 퇴직(0) 이후 무직상태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을 보면 퇴직 이후 5년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나 퇴직 이후 6년이 퇴면 모두 은퇴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임시·일용직으로 가장 많이 재진입하며, 다음으로 상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고용형태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한 해(0)에 바로 재취업한 종사상지위의 비율이 자영업, 임시·일용직, 상용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퇴직 이후 1년에서 2년까지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의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퇴직 이후 3년에서 4년까지는 임시·일용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퇴직 이후 5년째에는 자영업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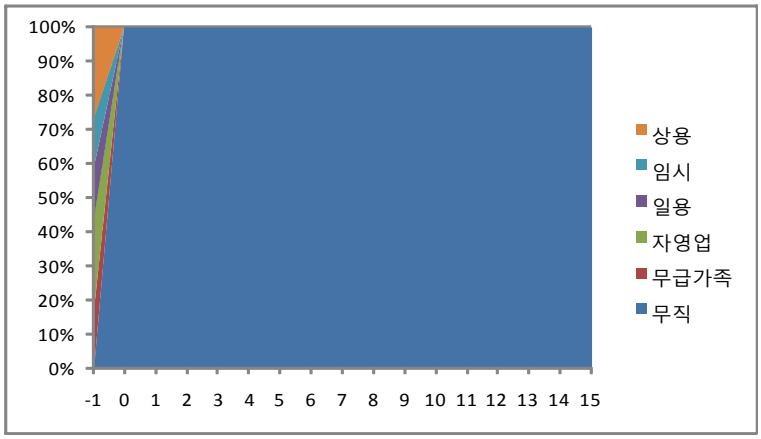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발 퇴직자의 세 번째 유형인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서는 자영업이 퇴직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형태가 상용직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임시·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적 변화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데, 퇴직 이후 1년은 자영업, 상용직, 임시·일용직의 순서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퇴직 이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상용직, 자영업, 임시·일용직의 순으로 비율이 나타난다. 그리고 퇴직 이후 6년에서 9년까지는 자영업과 상용직이 같은 비율을 보인다. 이후 자영업은 타 직종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은퇴하고,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퇴직 이후 12년에 모두 은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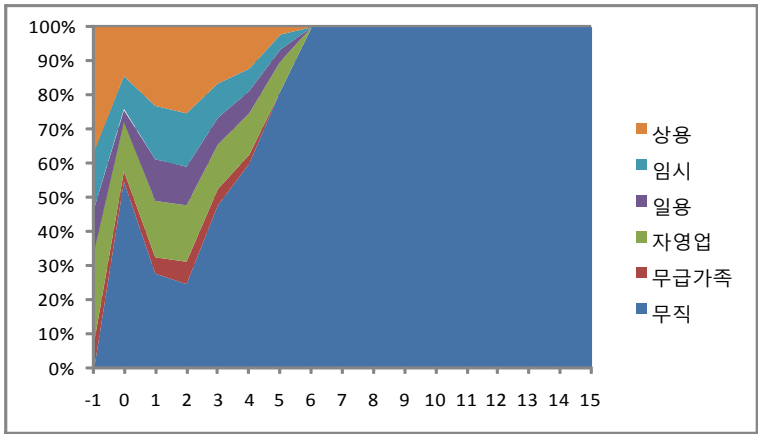
<표 10> 전체 자발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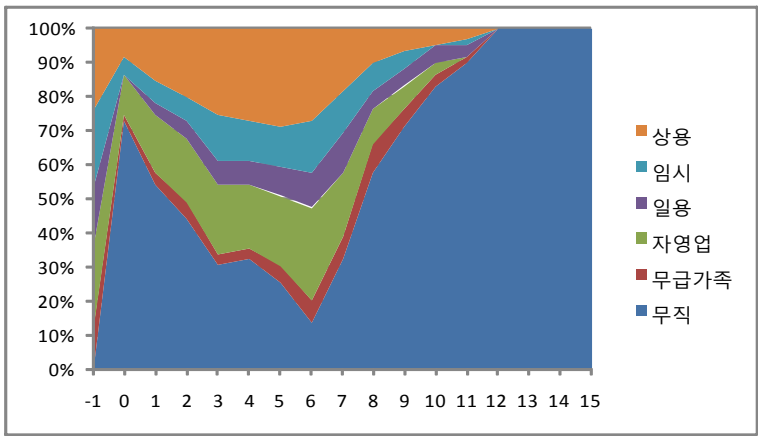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무직	1	0.20	100															
	무급가족	86	17.37																
	자영	132	26.67																
	일용	75	15.15																
	임시	70	14.14																
	상용	131	26.46																
	계	495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무직			54.44	27.78	24.44	47.78	60.00	81.11	100									
	무급가족	7	7.78	3.33	4.44	6.67	4.44	2.22											
	자영	24	26.67	14.44	16.67	16.67	13.33	12.22	8.89										
	일용	11	12.22	3.33	12.22	11.11	7.78	6.67	3.33										
	임시	15	16.67	10.00	15.56	15.56	10.00	6.67	4.44										
	상용	33	36.67	14.44	23.33	25.56	16.67	12.22	2.22										
	계	90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무직	1	1.69	72.88	54.24	44.07	30.51	32.20	25.42	13.56	32.20	57.63	71.19	83.05	89.83	100			
	무급가족	7	11.86	1.69	3.39	5.08	3.39	3.39	5.08	6.78	6.78	8.47	5.08	3.39	1.69				
	자영	14	23.73	11.86	16.95	18.64	20.34	18.64	20.34	27.12	18.64	10.17	6.78	3.39					
	일용	10	16.95		3.39	5.08	6.78	6.78	8.47	10.17	11.86	5.08	5.08	5.08	3.39				
	임시	13	22.03	5.08	6.78	6.78	13.56	11.86	11.86	15.25	11.86	8.47	5.08		1.69				
	상용	14	23.73	8.47	15.25	20.34	25.42	27.12	28.81	27.12	18.64	10.17	6.78	5.08	3.39				
	계	59																	



[그림 6]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7]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8]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3.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표 11>에 제시하였다.

자발적 퇴직자 전체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에 있어서 여성(63.35%)이 남성(36.6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출생코호트는 1940년대가 42.4%, 건강은 나쁨이 41.6%,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2.65%, 가구주 여부는 65.02%,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이 38.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은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에서는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38.18%로 가장 높았고,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1940년대가 각각 45.56%, 7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은 은퇴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쁨이 44.65%로 가장 높았고,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의 경우 보통이 42.22%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좋음이 4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은퇴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있었던 사람의 건강이 더 좋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은퇴유형별 교육수준에서는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 순서와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과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그 순서가 동일하여 초등학교 졸업(동일형: 32.73%, 장기분리형: 28.81%), 고등학교 졸업(동일형: 21.21%, 장기분리형: 23.73%), 무학(동일형: 21.01%, 장기분리형: 20.34%), 중학교 졸업(동일형: 17.37%, 장기분리형: 15.25%), 대학교 이상(동일형: 7.68%, 장기분리형: 11.86%)로 나타났으며, 이와 달리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27.78%), 중학교 졸업

과 고등학교 졸업이 18.89%로 동일하고, 다음이 무학(17.78%), 대학교 이상(16.67%)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모두 가구주인 비율이 높았으며, 퇴직 당시 종사상 지위에서는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과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서는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각각 29.35%, 39.65%로 높았으며,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상용직이 37.67%로 가장 높았다.

<표 11> 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자발 퇴직자			
		모형 전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성별	남성	36.65	36.36	31.11	47.46
	여성	63.35	63.64	68.89	52.54
출생 코호트	1940년대 이전	31.37	38.18	11.11	5.08
	1940년대	37.58	32.12	45.56	71.19
	1950년대 이후	31.06	29.70	43.33	23.73
건강	좋음	24.53	22.22	25.56	42.37
	보통	34.47	33.13	42.22	33.90
	나쁨	40.99	44.65	32.22	23.73
교육 수준	무학	20.50	21.01	17.78	20.34
	초등학교 졸	31.68	32.73	27.78	28.81
	중학교 졸	17.39	17.37	18.89	15.25
	고등학교 졸	21.12	21.21	18.89	23.73
	대학교 이상	9.32	7.68	16.67	11.86
가구주 여부	가구주	56.21	55.56	55.56	62.71
	비가구주	43.79	44.44	44.44	37.29
(퇴직 당시) 종사상 지위	상용직	27.73	26.52	36.67	24.14
	임시·일용직	30.21	29.35	28.89	39.65
	자영업자	26.48	26.72	26.67	24.14
	무급가족 종사자	15.58	17.41	7.78	12.07

4.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자발적 퇴직자의 경제적 특성은 다음의 <표 12>와 같이 나타난다.

<표 12> 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자발 퇴직자			
	모형 전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소득				
개인총소득	1674.5	1629.6	1809.1	1850
근로소득	2780.7	2869.5	2863.7	2137.9
금융소득	334.5	339.2	306	340
부동산소득	1992.8	1921.2	1587.1	3164.2
사회보험	677.3	667.3	709.6	700.3
이전소득	464.9	473	479.6	354.5
기타	1685	1652.6	1783.3	1772.5
가구총소득	2840.1	2785.2	3016.2	3038.4
가구총소득-근로소득	1310.6	1267.3	1374.2	1607.8
자산				
부동산자산	19650	18866.7	25877.1	17955.4
금융자산	3666.4	3637.7	3694.4	3844
가구총자산	13402.2	12931	14122.8	15848
가구부채	9428	9797.5	9168.3	7241.7
순가구자산	7233.9	6699.7	8315	9452.6

자발적 전체 퇴직자의 가구총소득은 2840.1만원이며,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은 1310.6만원, 순가구 자산은 7233.9만원이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은퇴유형에 따라 자발적 퇴직자의 세부 은퇴유형을 살펴보면, 소득구성에서는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가구총소득이 2785.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의 가구총소득이 3016.2만원,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가구총소득이 2038.4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살펴보았을 때는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 1267.3만원,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이 1374.2만원,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이 1607.8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산구성에서도 소득구성과 유사하게 자산이 가장 많은 은퇴 유형은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으로 이 유형의 순가구 자산은 9452.6만원이었다. 그리고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8315만원,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669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은퇴 이후 경제적 상황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다음에서는 추가적으로 퇴직자발성 여부에 따른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을 다시 한 번 분석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거 직업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지은정, 2006; 박경숙, 2003; 홍백의·김혜연, 2010; 박경하,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은퇴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의 정보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거 직업력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자발성 여부에 따른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종사상지위는 크게 상용직 종사자, 임시.일용직종사자[9], 자영업자[10] 3가지로 구분하였다.

1)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먼저,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유형화한 결과를 <표

9)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한국노동패널의 종사상지위 구분은 순수하게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임시직은 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되고 있음(한국노동패널 1~11차 유저가이드, 2008)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시·일용직을 함께 분석했다.

10) 한국노동패널에서 임금근로에 있어서는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하며 비임금 근로에 있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에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임금 근로자에 자영업자만 포함한다.

13>을 통해 제시하였다.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 이전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집단 수에 따라 변화되는 BIC값이 2집단까지는 감소하였나, 3집단 모형에서는 BIC값이 증가하여, 모형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 이정 종사상 지위별 자발 퇴직자의 은퇴 최적모형은 상용직 자발 퇴직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자영업 자발 퇴직자 모두 2집단 모형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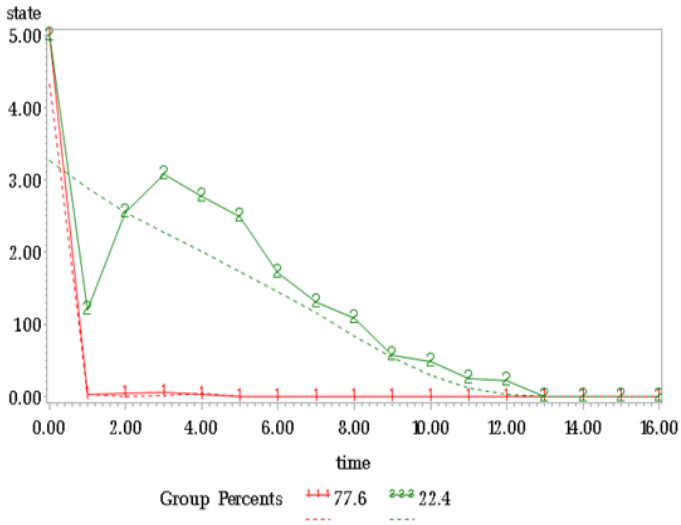
<표 13> 종사상 지위별 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모형	BIC	$2(\Delta BIC)$	1	2	3
상용직 자발 퇴직	1집단	-1567.67		100%		
	2집단	**-1225.17**	**685.00**	**77.6%**	**22.4%**	
	3집단	-1238.13	-25.92	77.6%	0.0%	22.4%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모형	BIC	$2(\Delta BIC)$	1	2	3
	1집단	-1684.50		100%		
	2집단	**-1309.83**	**749.34**	**76.2%**	**23.8%**	
	3집단	-1314.01	-8.36	0.0%	77.9%	22.1%
자영업 자발 퇴직	모형	BIC	$2(\Delta BIC)$	1	2	3
	1집단	-1307.55		100%		
	2집단	**-965.92**	**683.26**	**78.2%**	**21.8%**	
	3집단	-938.01	55.82	77.6%	7.0%	15.4%

주) $2(\Delta BIC)$: $2\times(BIC_{k+1}-BIC_k)$

상용직 자발 퇴직자의 은퇴 최적모형은 [그림 9]와 같다. 상용직 자발 퇴직자의 1집단은 퇴직-은퇴 동일형으로, 77.6%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으로 명명하고, 22.4%를 차지하는 2집단은 퇴직 이후 다시 노동시장을 재진입하는 형태를 보임에 따라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으로 명명한다.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을 살펴보면, time3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다가 time3 이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다. 이후 time 13이 되면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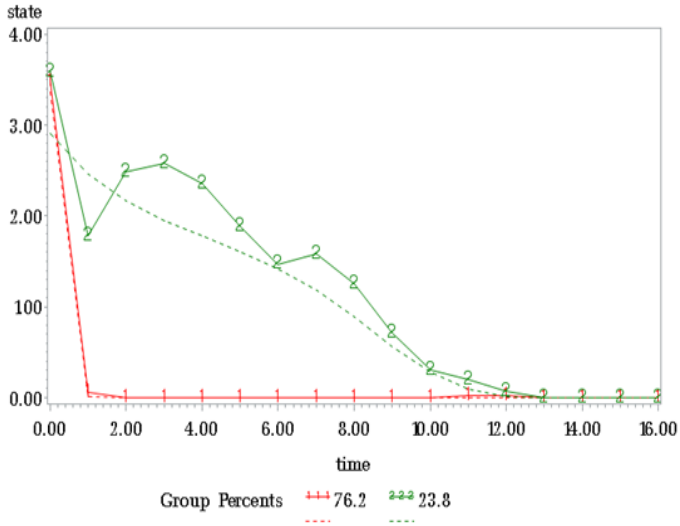


[그림 9] 상용직 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의 최적모형을 살펴보면, 퇴직 이후 바로 은퇴하게 되는 집단인 1집단을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으로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다 은퇴하게 되는 2집단을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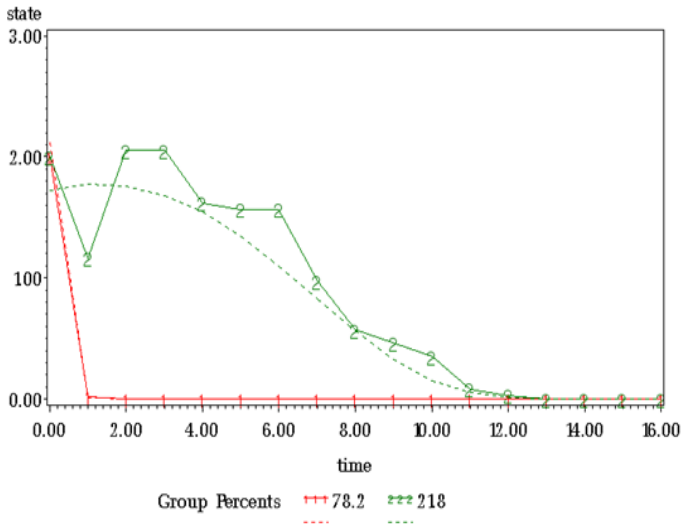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76.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2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상용직 자발 퇴직자의 최적 집단 모형의 비율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한 해(time 1)에 바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시작하여 time 3이후로 고용형태가 하락하다 다시 time 6 이후부터 time 7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상승한다. 그리고 time 7부터 퇴직이 증가하여 time 13에는 모두 은퇴하게 된다.



[그림 10]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자영업 자발 퇴직자의 적합모형을 살펴보면,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라 부를 수 있는 1집단이 76.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21.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퇴직 이후 time3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져 급격한 경사와 완만한 경사를 반복하며 time12에 은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 자영업 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발적 퇴직 집단은 은퇴시기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state의 변화에서 종사상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상용직 자발 퇴직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노동시장 재진입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은 노동시장 재진입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 계단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후확률을 통해 모델 적합성을 평가 해 볼 때, 상용직 자발 퇴직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자영업 자발 퇴직자 모두 <표 14>에서 나타나는 사후확률에서 100%의 확률을 보임에 따라 이들의 모형 설정이 잘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14> 종사상지위별 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상용직 자발 퇴직자	할당된 집단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1집단	1.00	0.00
	2집단	0.00	1.00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할당된 집단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1집단	1.00	0.00
	2집단	0.00	1.00
자영업 자발 퇴직자	할당된 그룹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1집단	1.00	0.00
	2집단	0.00	1.00

2)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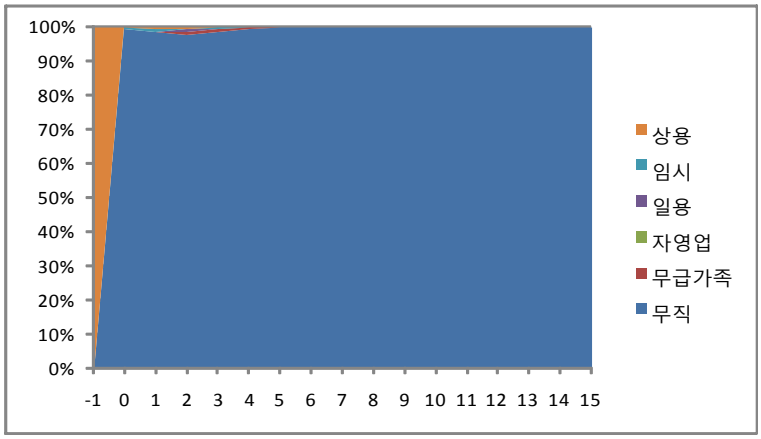
여기서는 자발적 퇴직자가 퇴직 이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종사상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시한다.

먼저, 상용직 자발 퇴직자의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앞서 제시한 [그림 11]의 상용직 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에서 확인했듯, 퇴직 이후 무직상태를 유지하면서 은퇴로 이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퇴직한 해(0)에 약 35%의 퇴직자가 바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며, 퇴직 이후 2년까지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 이후 3년부터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퇴직 이후 12년이 되면 모두 은퇴한다. 이들의 노동시장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업의 순으로 비율이 나타난다.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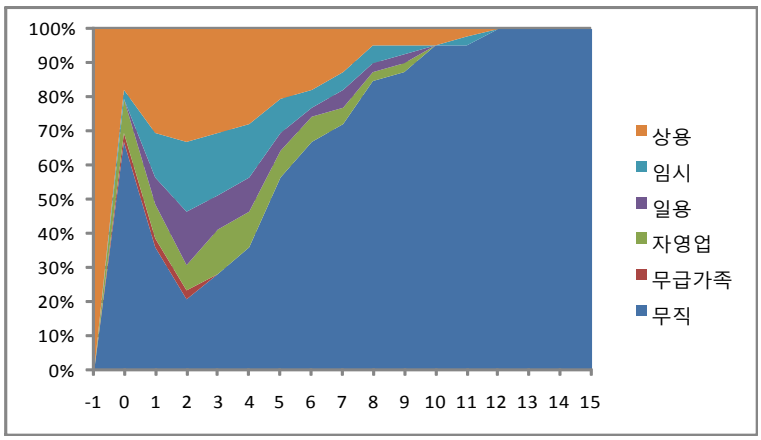
<표 15> 상용직 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무직			99.28	98.56	97.84	98.56	99.28	100										
	무급가족					0.72	0.72	0.72											
	자영																		
	일용					0.72													
	임시			0.72	0.72		0.72												
	상용	139	100		0.72	0.72													
	계	139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무직			66.67	35.90	20.51	28.21	35.90	56.41	66.67	71.79	84.62	87.18	94.87	94.87	100			
	무급가족			2.56	2.56	2.56													
	자영			10.26	10.26	7.69	12.82	10.26	7.69	7.69	5.13	2.56	2.56						
	일용				7.69	15.38	10.26	10.26	5.13	2.56	5.13	2.56	2.56						
	임시			2.56	12.82	20.51	17.95	15.38	10.26	5.13	5.13	5.13	2.56		2.56				
	상용	39	100	17.95	30.77	33.33	30.77	28.21	20.51	17.95	12.82	5.13	5.13	5.13	2.56				
	계	39																	



[그림 12]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13]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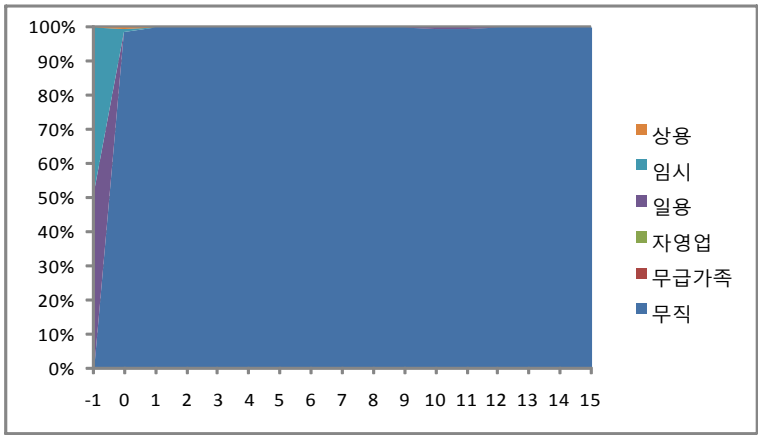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발적 퇴직자들의 퇴직 이후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 이후 그대로 은퇴하는 특성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1년 이후 퇴직이 증가하지만, 이전 [그림 10]에서는 time3이후로 고용형태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표 16>와 [그림 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퇴직 이후 2년부터는 상용직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종사상지위가 상승하여 [그림 10]에서의 그래프의 state가 상승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의 퇴직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퇴직 이후 1년부터이다. 이들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임시.일용직, 상용직, 자영업의 순으로 비율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퇴직 이후 2년부터 상용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퇴직 이후 4년까지 상용직이 임시.일용직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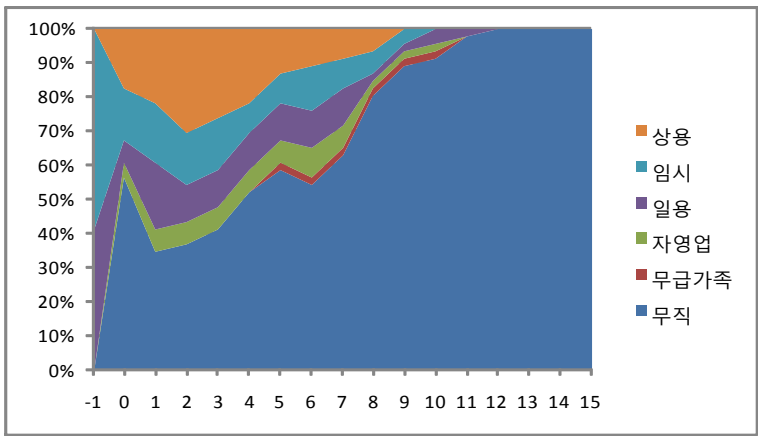
<표 16> 임시· 일용직 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임시. 일용직 자발 퇴직- 은퇴 동일형	무직			98.65	100														
	무급가족																		
	자영																		
	일용	77	52.03																
	임시	71	47.97	0.68															
	상용			0.68															
	계	148																	
임시. 일용직 자발 퇴직- 은퇴 분리형	무직			56.52	34.78	36.96	41.30	52.17	58.70	54.35	63.04	80.43	89.13	91.30	97.83	100			
	무급가족								2.17	2.17	2.17	2.17	2.17	2.17					
	자영			4.35	6.52	6.52	6.52	6.52	6.52	8.70	6.52	2.17	2.17	2.17					
	일용	19	41.30	6.52	19.57	10.87	10.87	10.87	10.87	10.87	10.87	2.17	2.17	4.35	2.17				
	임시	27	58.70	15.22	17.39	15.22	15.22	8.70	8.70	13.04	8.70	6.52	4.35						
	상용			17.39	21.74	30.43	26.09	21.74	13.04	10.87	8.70	6.52							
	계	46																	



[그림 14] 임시· 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15] 임시· 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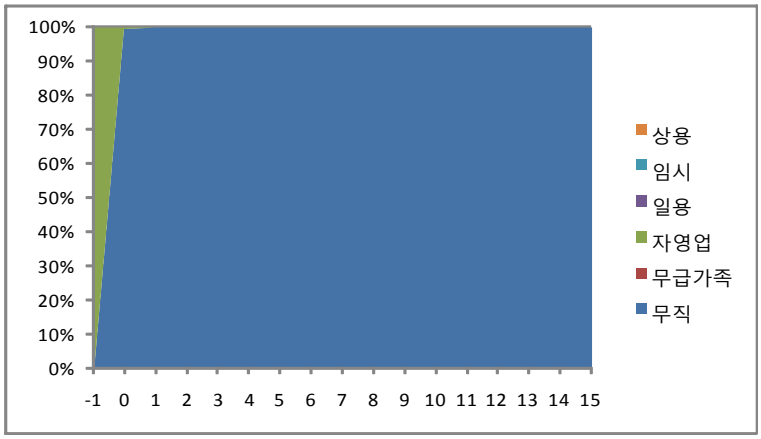
자영업 자발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 퇴직한 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종사하던 직종으로 가장 많이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이 바로 은퇴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2년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여 퇴직 이후 12년이 되면 완전히 은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고용형태의 변화에 있어 자영업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일용직이 거의 없고 임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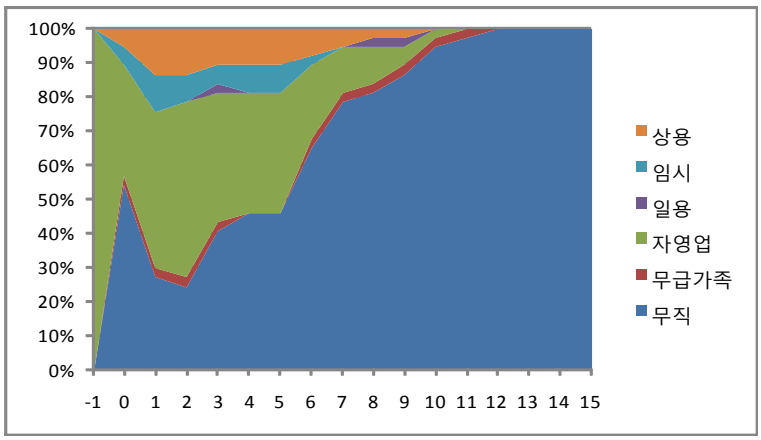
<표 17> 자영업 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무직			99.25	100														
	무급가족																		
	자영	133	100	0.75															
	일용																		
	임시																		
	상용																		
	계	133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무직			54.05	27.03	24.32	40.54	45.95	45.95	64.86	78.38	81.08	86.49	94.59	97.30	100			
	무급가족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자영	37	100	32.43	45.95	51.35	37.84	35.14	35.14	21.62	13.51	10.81	5.41	2.70					
	일용						2.70					2.70	2.70						
	임시			5.41	10.81	8.11	5.41	8.11	8.11	2.70									
	상용			5.41	13.51	13.51	10.81	10.81	10.81	8.11	5.41	2.70	2.70						
	계	37																	



[그림 16]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17]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3)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발적 퇴직자들의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따른 은퇴유형에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8>과 같이 나타난다.

<표 18>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상용직 자발 퇴직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자영업 자발 퇴직자		
		모형 전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모형 전체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모형 전체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성별	남성	43.82	43.17	46.15	36.60	38.51	30.43	48.82	47.37	54.05
	여성	56.18	56.83	53.85	63.40	61.49	69.57	51.18	52.63	49.95
출생코호트	1940년대 이전	24.72	28.06	12.82	29.38	35.81	8.70	31.18	39.10	2.70
	1940년대	37.64	37.41	38.46	35.57	27.03	63.04	41.18	34.59	64.86
	1950년대 이후	37.64	34.53	48.72	35.05	37.16	28.26	27.65	26.32	32.43
건강	좋음	28.09	34.46	43.03	23.20	23.65	21.74	22.35	20.30	29.73
	보통	37.64	37.41	38.46	31.96	27.70	46.65	33.53	31.58	40.54
	나쁨	34.27	38.13	20.51	44.85	48.65	32.61	44.12	48.12	29.73
교육수준	무학	9.55	10.07	7.69	23.20	19.59	34.78	17.65	18.05	16.22
	초등학교 졸	28.09	28.78	25.64	37.11	38.51	32.61	28.82	30.83	21.62
	중학교 졸	19.66	18.71	23.08	14.95	16.22	10.87	21.76	22.56	18.92
	고등학교 졸	28.09	30.22	20.51	19.07	20.95	13.04	18.82	17.29	24.32
	대학교 이상	14.61	12.23	23.08	5.67	4.73	8.70	12.94	11.28	18.92
가구주여부	가구주	59.55	56.12	71.79	59.79	60.14	58.70	67.06	67.67	64.86
	비가구주	40.45	43.88	28.21	40.21	39.86	41.30	32.94	32.33	35.14

성별에 있어서는 종사상지위와 관계없이 자발적 퇴직자의 종사상지위별 전체 은퇴모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만 유일하게 남성의 비율이 54.05%로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에서는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따라 출생코호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용직 자발 퇴직 집단 전체는 1940년대와 1950년대 이후 출생이 37.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모형에 따라서는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경우 1940년대 출생이 가장 많았으나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1950년대 이후 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 전체의 출생코호트의 경우는 1940년대 출생이 가장 많았으나,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에서는 1940년대 출생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오히려 1950년대 이후 출생이 37.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1940년대 출생이 63.04%의 비율로 매우 높았다.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 전체에서는 1940년대 출생이 41.1%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에서는 1940년대 이전 출생이 39.1%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1940년대 출생이 6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출생코호트가 1940년대가 가장 많았지만, 상용직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서는 상용직 퇴직자의 경우 보통이 37.64%로 가장 높았지만,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퇴직자의 경우 나쁨이 각각 44.85%, 4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에서 나쁨이 각각 38.14%, 48.65%, 48.1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좋음이 각각 43.03%,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과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보통이 각각 46.65%, 40.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 퇴직자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퇴직자에 비해 은퇴 이후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종사상지위별 자발 퇴직자는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다가 은퇴한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에서 상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28.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과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37.11%, 2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고등학교 졸업이 30.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28.78%), 중학교 졸업(18.71%), 대학교 이상(12.23%), 무학(10.0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25.64%), 중학교 졸업과 대학교 이상(23.08%), 중학교 졸업(20.51%), 무학(7.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초등학교 졸업(38.51%), 고등학교 졸업(20.95%), 무학(19.59%), 중학교 졸업(16.22%), 대학교 이상(4.73%)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32.61%), 무학(34.78%), 고등학교 졸업(10.04%), 중학교 졸업(10.87%), 대학교 이상(8.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초등학교 졸업(30.83%), 중학교 졸업(22.56%), 무학(18.05%), 고등학교 졸업(17.29%), 대학교 이상(11.28%)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21.62%), 고등학교 졸업 (24.32%), 중학교 졸업과 대학교 이상이 (18.92%), 무학(16.2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용직과 자영업 자발적 퇴직 집단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은퇴유형에서 교육수준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임시·일용직에서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은 집단인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더 높음에 따라 임시·일용직 자발적 퇴직 집단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은 은퇴유형이 교육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여부에 있어서는 모든 종사상지위에서의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에서 가구주인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가구주인 비율이 59.55%, 임시·일용직은 59.79%, 자영업은 67.06%로 나타났다. 은퇴모형에 따른 가구주 비율은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56.12%,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71.79%,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60.14%,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58.7%,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67.67%,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64.86%였다. 가구주의 비율에서는 상용직만이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집단에서 가구주의 비율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은 집단에서 가구주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자발적 퇴직 집단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경제적 특성을 <표 19>에 제시하였다.

먼저, 소득구성에서 가구총소득은 상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가구총소득이 3073.7만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2467.4만원,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은 3073.9만원으로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의 가구총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보면, 상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1478.2만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1011.8만원,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은 155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소득구성을 보이는 은퇴유형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으로 이들의 가구총소득은 3333.7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은 1794.1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가구총소득이 높은 은퇴유형은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3245.4만원,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3027.5만원,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3000.3만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2764.1만원의 순이었으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가구총소득이 2378.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은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1636.2만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1558.6만원)],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1398.5만원)],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1261.1만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859.8만원)]의 차례로 나타났다. 소득구성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에 있어서는 각 종사상지위에서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던 퇴

직-은퇴 분리형의 소득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9>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상용직 자발 퇴직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자영업 자발 퇴직자		
	모형 전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모형 전체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모형 전체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소득									
개인총소득	1847.9	1795.1	2034.6	1475.4	1412.9	1684	1782.8	1736.8	1952.4
근로소득	2744.1	2751.2	2721.1	2592.3	2798.4	2045	3057.2	3021	3160.2
금융소득	257.9	261.1	210	400.1	388.3	447.5	276.7	273.7	288
부동산소득	1725.9	1611.3	1993.3	1376.9	748.9	3191.1	2741.4	2823.2	2083.3
사회보험	1039	1082	889.5	396.7	412.1	354	549.8	505.6	682.4
이전소득	411.5	417.8	385.8	508.7	494.8	565.3	543.4	573.7	427.3
기타	2144.9	1798.4	3300	1517.3	1757.1	1097.5	1202	1077.5	1700
가구총소득	3073.7	3000.3	3333.7	2467.4	2378.5	2764.1	3073.9	3027.5	3245.4
가구총소득-근로소득	1478.2	1398.5	1794.1	1011.8	859.8	1560.6	1558.6	1636.2	1261.1
자산									
부동산자산	17960	15479.1	24235.3	17061.6	18488.6	10818.8	23046.3	22097.8	25342.5
금융자산	4170.2	4316.5	3668.6	2698.9	2474.5	3305.6	4288.1	4065.6	5049.1
가구총자산	12314.5	10970.7	16301.3	8880.9	9624.8	6511.1	17867.4	16212.2	23097.6
가구부채	7597	6293.6	10821.1	6762.2	7770.2	4271.8	11763.2	12370	9740.5
순가구자산	7303.3	6874.7	8589.1	4650.1	5168.9	3126.7	9189.9	7358.5	14873.6

자산구성에서는 상용직 자발 퇴직 집단의 순가구자산이 7303.3만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의 순가구자산이 4650.1만원,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의 순가구자산이 9189.9만원으로 임시·일용직 퇴직 집단의 경제적 특성이 가장 낮고,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의 경제적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순가구자산은 6874.7만원,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8589.1만원, [임시·일용

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5168.9만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3126.7만원,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7358.5만원,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14873.6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의 자산구성 특징은 상용직과 자영업 자발 퇴직 집단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뒤 은퇴하는 퇴직-은퇴 분리형의 순가구자산이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 집단은 퇴직-은퇴 동일형의 자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 자발 퇴직 집단의 경제적 특성에서 눈에 띄는 은퇴유형은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으로 이들의 부동산소득이 높게 나온 특이점을 제외하면, 이들은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에서 다른 종사상지위의 자발 퇴직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경제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상황이 좋지 못한 취약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1.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여기서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 분석을 제시한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이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 역시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같이 3집단까지 BIC값이 감소하였으며, 4집단부터는 BIC값이 증가하여 3집단 모형을 채택한다.

<표 20> 비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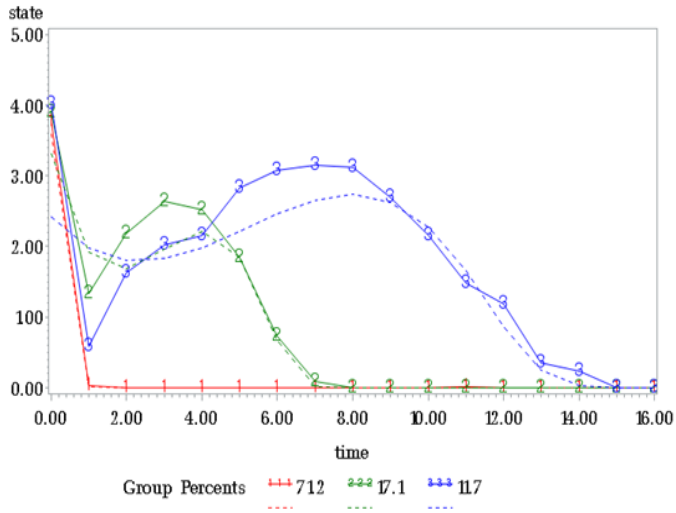
	비자발 퇴직					
모형	BIC	$2(\Delta 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1집단	-4893.56		100%			
2집단	-3823.38	2122.36	74.7%	25.3%		
3집단	**-3546.85**	**553.06**	**71.2%**	**17.1%**	**11.7%**	
4집단	-3570.87	-48.04	71.0%	0.0%	17.1%	11.9%

주) $2(\Delta BIC)$: $2\times(BIC_{k+1}-BIC_k)$

비자발적 퇴직자 최적 선택모형인 다음의 [그림 18]을 살펴보면, 퇴직 이후 바로 은퇴하게 되는 1집단이 71.2%로 자발적 퇴직집단에 비해 약 5%p 낮게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 2집단은 17.1%로 자발적 퇴직집단과 유사하게 time 3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집단 비해 집단 비율이 약 3%p 더 높게 나타났으며, time 4부터 급격하게 노동시장 이탈이 나타나는 자발적 퇴직집단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3집단은 11.7%로 자발적 퇴직자에 비해 약 2%p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한 자발적 퇴직자에 비해 완전히 은퇴하게 되는 시점도 2년 더 늦은 time 15로 나타났다.

전체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 최적모형 역시, 전체 자발 퇴직자와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8] 전체 비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은 <표 21>에 제시된 집단별 사후확률에서 전체적으로 99% 이상의 높은 확률을 보임에 따라 그들의 행동패턴에 잘 부합하는 집단에 종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1> 비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할당된 집단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3집단
1집단	1.00	0.00	0.00
2집단	0.00	0.99	0.01
3집단	0.00	0.00	1.00

2.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전체 비자발 퇴직자의 시간에 따른 종사상지위변화를 <표 22>,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로 제시하였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 이후 그대로 은퇴함에 따라 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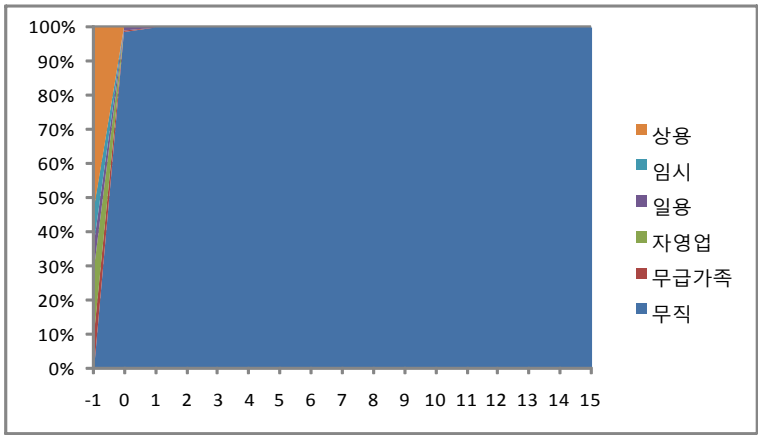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의 경우, 퇴직 이후 2년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여 퇴직 이후 7년이 되면 모두 은퇴한다. 그리고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면, 퇴직 이후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상용직, 자영업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유사하다. 그런데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무급가족 종사자와 자영업의 비율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임시·일용직, 상용직, 자영업의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퇴직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퇴직 이후 7년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한다. 그리고 퇴직 이후 8년을 시점으로 은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 급격한 은퇴 증가시기를 기점으로 퇴직 이후 9년이 되면 상용직의 비율이 임시·일용직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퇴직 이후 10년이 되면, 상용직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다시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아지며, 퇴직 이후 14년에 모두 은퇴한다. 이러한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의 특성은 앞서, 자영업과 상용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전체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의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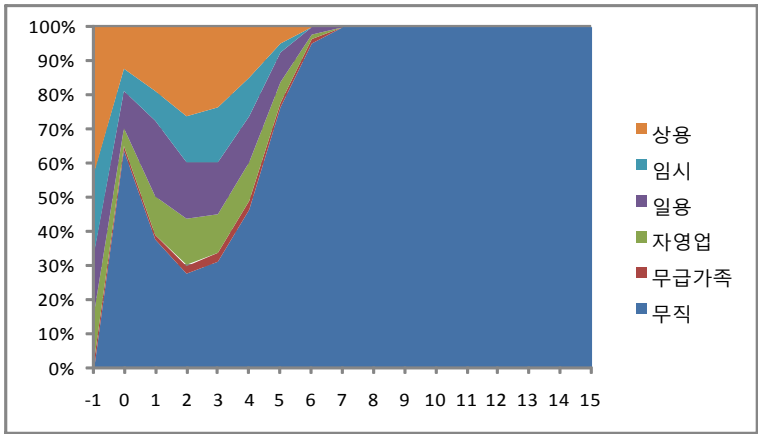
<표 22>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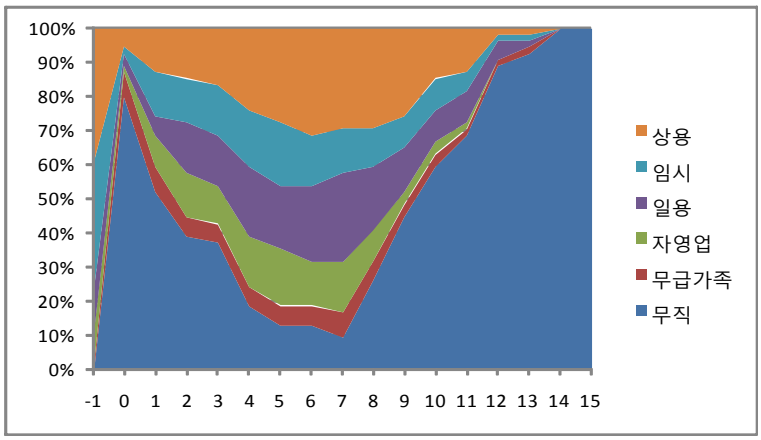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무직	1	0.30	98.50	100									99.70	100				
	무급가족	34	10.18	0.30															
	자영	65	19.46	0.30															
	일용	24	7.19	0.90										0.30					
	임시	34	10.18																
	상용	176	52.69																
	계	334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무직			63.75	37.50	27.50	31.25	46.25	76.25	95.00	100								
	무급가족	2	2.50	1.25	1.25	2.50	2.50	2.00	1.25	1.25									
	자영	11	13.75	5.00	11.25	13.75	11.25	5.00	6.25	1.25									
	일용	14	17.50	11.25	22.50	16.25	15.00	11.25	8.75	2.50									
	임시	19	23.75	6.25	8.75	13.75	16.25	13.75	2.50										
	상용	34	42.50	12.50	18.75	26.25	23.75	11.25	5.00										
	계	80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무직			79.63	51.85	38.89	37.04	18.52	12.96	12.96	9.26	25.96	44.44	59.26	68.52	88.89	92.59	100	
	무급가족	1	1.85	7.41	7.41	5.56	5.56	5.56	5.56	5.56	7.41	5.56	3.70	3.70	9.26	1.85	1.85		
	자영	5	9.26	1.85	9.26	12.96	11.11	14.81	16.67	12.96	14.81	9.26	3.70	3.70	1.85				
	일용	7	12.96	3.70	5.56	14.81	14.81	20.37	18.52	22.22	25.93	18.52	12.96	9.26	1.85	5.56	1.85		
	임시	20	37.04	1.85	12.96	12.96	14.81	16.67	18.52	14.81	12.96	11.11	9.26	9.26	5.56	1.85	1.85		
	상용	21	38.89	5.56	12.96	14.81	16.67	24.07	27.78	31.48	29.63	29.63	25.93	14.81	12.96	1.85	1.85		
	계	54																	



[그림 19]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20]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21]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3.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3>과 같다.

<표 23> 비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자발적 퇴직자			
		모형 전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성별	남성	57.69	57.49	53.75	64.81
	여성	42.31	42.51	46.25	35.19
출생 코호트	1940년대 이전	25.21	30.84	13.75	7.41
	1940년대	53.63	47.01	58.75	87.04
	1950년대 이후	21.15	22.16	27.50	5.56
건강	좋음	25.85	29.04	17.50	18.52
	보통	34.83	31.74	46.25	37.04
	나쁨	39.32	39.22	36.25	44.44
교육 수준	무학	11.11	11.68	11.25	7.41
	초등학교 졸	33.76	32.63	33.75	40.74
	중학교 졸	16.88	14.97	18.75	25.93
	고등학교 졸	22.44	22.16	28.75	14.81
	대학교 이상	15.81	18.56	7.50	11.11
가구주 여부	가구주	70.51	67.96	75.00	79.63
	비가구주	29.49	32.04	25.00	20.37
(퇴직 당시) 종사상 지위	상용직	49.46	52.85	42.50	38.89
	임시·일용직	25.27	17.42	41.25	50.00
	자영업자	17.34	19.52	13.75	9.26
	무급가족 종사자	7.92	10.21	2.50	1.85

비자발적 퇴직자의 성별은 남성(57.69%)이 여성(42.31%)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출생코호트는 1940년대가 53.63.4%, 건강은 나쁨이 39.32%,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3.76%,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인 경우가

70.51%%,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이 49.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퇴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교했을 때, 성별의 차이 외에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은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남성 비율이 64.81%로 가장 높았다.

출생코호트에서는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두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각각 47.01%, 58.75%, 8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쁨이 각각 39.22%, 44.44%로 가장 높았고,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의 경우 보통이 46.2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은퇴 이후의 건강상태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단기적으로 재진입했던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건강이 퇴직 이후 노동시장을 바로 이탈하거나 장기간 재진입 했던 비자발적 퇴직 집단에 비해 더 좋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퇴직 집단이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늦게 은퇴할수록 은퇴 이후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은퇴유형별 교육수준에서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도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같이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순서와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초등학교 졸업(32.63%), 고등학교 졸업(22.16%), 대학교 이상(18.56%), 중학교 졸업(14.97%), 무학(11.68%)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33.75%), 고등학교 졸업(28.75%), 무학(11.25%), 대학교 이상(7.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40.74%), 중학교 졸업(25.93%), 고등학교 졸업(14.81%), 대학교 이상(11.11%), 무학(7.41%)으로 차례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경우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초등

학교 졸업 및 무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비자발적 퇴직자자 역시 자발적 퇴직자와 같이 은퇴유형 모두 가구주인 비율이 높았으며, 그 비율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67.96%,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75%,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79.63%로,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경우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늦게 은퇴 할수록 가구주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시 종사상 지위에서는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이 각각 52.85%, 52.5%로 높았으며,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임시·일용직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퇴직 집단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서 자발적 퇴직 집단의 경우 임시·일용직에서 퇴직한 비율(30.21%)이 가장 높았으나,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경우 상용직에서 퇴직한 비율(49.46%)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상용직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김종원(20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상용직의 퇴직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과 같은 강제퇴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지은정, 2011)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종사상지위별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추가적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4.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제적 특성을 다음의 <표 24>로 제시하였다.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가구총소득은 2640.7만원이며,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은 1284만원, 순가구자산은 9497만원이다.

은퇴유형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의 세부 은퇴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구성에서는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가구총소득이 2764.3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1419.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의 가구총소득이 2415.6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1000.4만원,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가구총소득이 2205.4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

득을 뺀 소득이 823.2만원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퇴직 집단과 다른 결과로, 자발적 퇴직 집단의 경우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늦게 은퇴할수록 소득구성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퇴직 집단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늦게 은퇴할수록 소득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자산구성은 소득구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가장 높은 자산을 보이는 은퇴유형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으로 이 유형의 순가구 자산은 10646.7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9927.1만원,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6888.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비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비자발적 퇴직자			
	모형 전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소득				
개인총소득	1589.2	1672	1429.1	1311.8
근로소득	2536.8	2723.2	2349.1	1961
금융소득	374.8	369.3	342.5	445.1
부동산소득	738.7	700.7	870.8	871
사회보험	993.8	1155	820.2	296.9
이전소득	440.5	424.7	441.9	546.7
기타	2651.8	3262.7	210	206.7
가구총소득	2640.7	2764.3	2415.6	2205.4
가구총소득 -근로소득	1284	1419.2	1000.4	823.2
자산				
부동산자산	20583	20022.2	17072.7	32821.4
금융자산	4385.9	4810.2	3223.1	3575.3
가구총자산	14611	14958.5	12669.6	15102.9
가구부채	6883.4	7122	6103.2	6829.4
순가구자산	9497	9927.1	6888.3	10646.7

5.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분석

여기서는 앞서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 분석에서와 같이 비자발적 퇴직자의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 추가분석을 제시한다.

특히,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추가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특성에서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가 상용직 퇴직자가 매우 많으며, 이러한 구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에도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종사상지위를 분리하여 은퇴유형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비자발적 퇴직자의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은 아래의 <표 25>와 같다.

<표 25>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 퇴직자 모형별 BIC값 변화와 은퇴유형별 비율

(단위: %)

	모형	BIC	$2(\Delta BIC)$	1	2	3	4
상용직 비자발 퇴직	1집단	-2085.74		100%			
	2집단	-1620.14	931.20	76.2%	23.8%		
	3집단	**-1483.96**	**272.36**	**76.1%**	**13.9%**	**10.0%**	
	4집단	-1496.34	24.76	0.0%	12.5%	77.6%	10.0%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모형	BIC	$2(\Delta BIC)$	1	2	3	
	1집단	-1788.44		100%			
	2집단	**-1484.15**	**608.58**	**65.6%**	**34.4%**		
	3집단	-1394.07	180.16	21.6%	47.9%	30.5%	
자영업 비자발 퇴직	모형	BIC	$2(\Delta BIC)$	1	2	3	
	1집단	-660.24		100%			
	2집단	**-479.53**	**361.42**	**80.2%**	**19.8%**		
	3집단	-483.64	-8.22	82.6%	1.3%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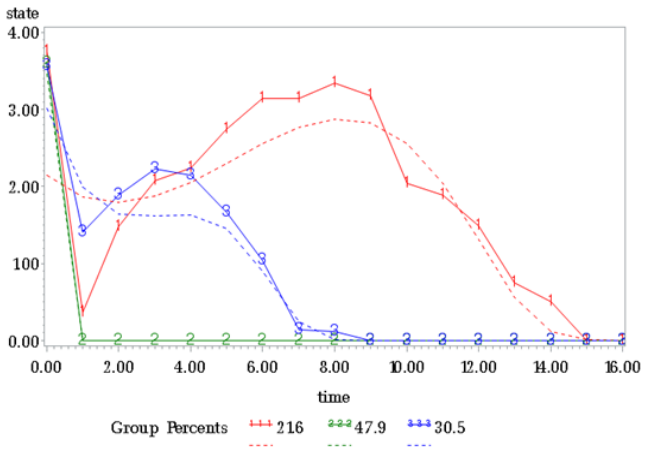
주) $2(\Delta BIC)$: $2\times(BIC_{k+1}-BIC_k)$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 모형은 집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4집단까지도 BIC값이 감소하며 4집단 모형의 2(ΔBIC)기준도 적절하지만, 4집단 모형의 계수 값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표 25>의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유형 4집단 모형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4집단 모형에서 1집단의 비율은 0%가 된다. 따라서 4집단 모형에서는 이전의 집단 분화와 다른 모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 모형은 3집단 모형을 최적 집단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상용직 자발 퇴직자는 2집단 모형이 최적 모형이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3집단 모형이 될 때까지도 BIC값은 감소한다. 그러나 집단 분화에 있어, 2집단 모형에서 3집단 모형으로 넘어가면서 집단별 비율이 역전하게 된다. 2집단 모형에서는 1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3집단 모형에서는 2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금까지의 유형선택에 따르면, 최적모형의 1집단은 퇴직이 은퇴로 연결되는 유형이었다. 2집단 모형의 궤적과 3집단 모형의 궤적을 확인 한 결과[11], 앞서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3집단 모형에서 2집단이 퇴직 후 바로 은퇴하게 되는 집단으로 추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 최적모형으로 2집단 모형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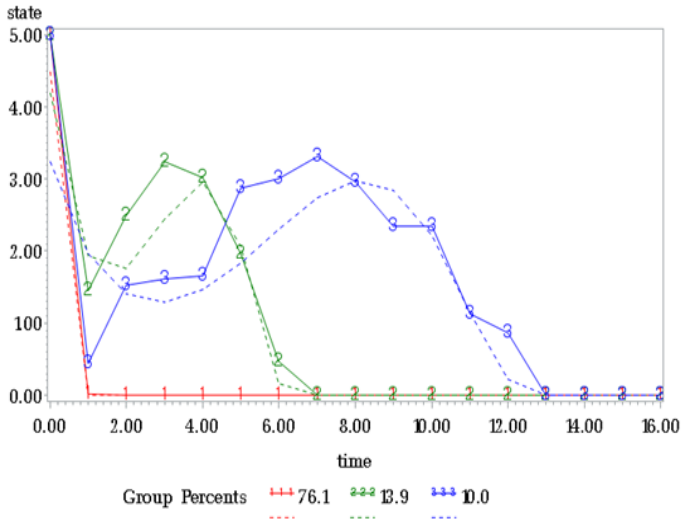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는 2집단 모형까지만 BIC값이 감소하고, 3집단 모형부터는 BIC값이 증가하여 2(ΔBIC)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집단

11)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3집단 모형의 그림: 2집단이 퇴직 이후 바로 은퇴하는 결과를 보인다.



모형을 적합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 최적모형인 [그림 22]에서 제시하였다.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 최적모형에서 1집단을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2집단을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3집단을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으로 명명한다.



[그림 22]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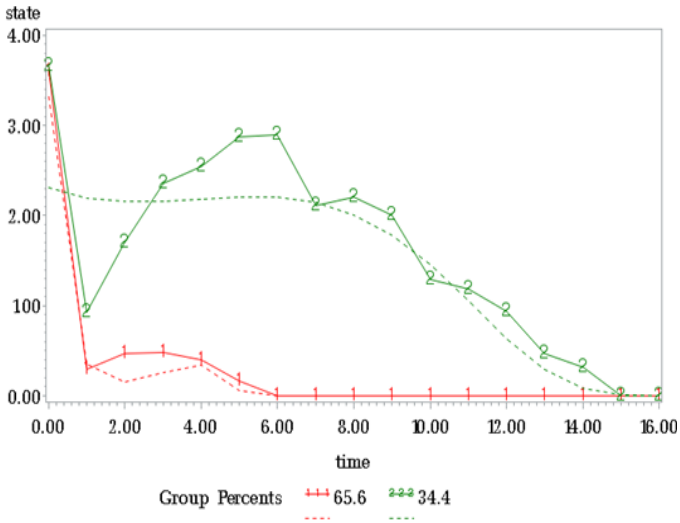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이 은퇴로 연결되는 집단으로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 중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77.6%)]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의 경우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 중 13.9%를 차지한다. 이들은 time 3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지며 tim 3이후부터 은퇴가 증가하여 time 7이 되면 완전히 은퇴하게 된다.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time7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에 있어 단계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time 1에서 time 2까지 급격한 증가가 한 번 일어난 뒤, 다시 time 4에서 time 5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time 7 이후부터 은퇴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time 13

이 되면 완전한 은퇴가 이루어진다.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최적모형은 [그림 23]의 2집단 모형이다. 여기서는 앞선 은퇴유형과는 달리, 1집단이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단기적으로 재진입 한 뒤 은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모형은 퇴직-은퇴 동일형이 없이, 비교적 일찍 은퇴하게 되는 1집단은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으로 2집단은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으로 구분한다.



[그림 23]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 3집단 모형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 중에서 65.6%를 차지한다. 이들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잠깐 재진입 했다가 time 6에 은퇴하는데, 이는 노동시장 재진입이 거의 없는 퇴직-은퇴 동일형의 특성과 퇴직 이후 5년이나 6년이 되는 시기에 퇴직하는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 중에서 34.4%를 차지한다. 이들은 퇴직 이후 time 6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다 time 7에 잠깐 고용형태가 하락하지만 time 8에 다시 증가한 뒤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완만한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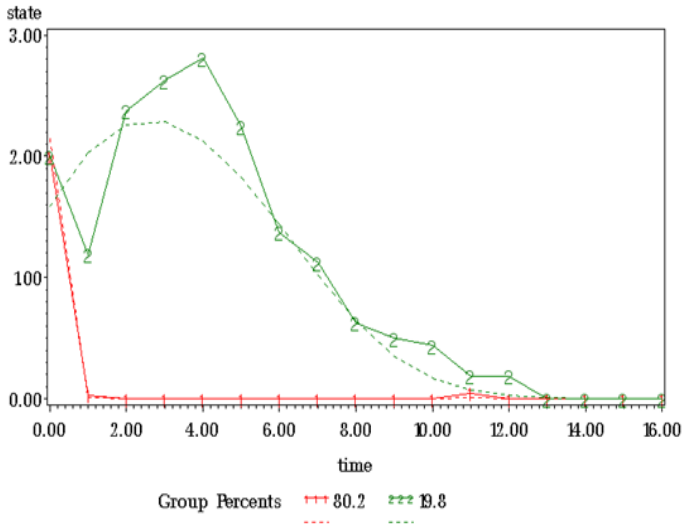
과 급격한 이탈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이 완전히 은퇴하게 되는 시점은 time 15가 된다.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 최적모형은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과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2가지로 명명할 수 있다.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 80.7%를,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이 10.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없이 은퇴하게 된다. 그리고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time 4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여 그 이후로 급격하게 노동시장 이탈이 진행되어 time 13에 모두 은퇴하게 된다.

퇴직 이전 자영업에 종사하던 퇴직자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보다 퇴직 이후 바로 은퇴하게 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퇴직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더 많은 비율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림 24]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 2집단 모형

비자발 퇴직자의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 분석에서 사후확률을 통하여 모델 적합성을 평가할 때,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와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는

100%,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는 99%의 사후확률을 보임에 따라 이들은 각 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집단에 구성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26>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 퇴직 집단별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할당된 집단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3집단
상용직 비자발 퇴직	1집단	1.00	0.00	0.00
	2집단	0.00	1.00	0.00
	3집단	0.00	0.00	1.00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할당된 집단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1집단	0.99	0.01	
	2집단	0.01	0.99	
자영업 비자발 퇴직	할당된 그룹	지정된 집단에 속할 확률		
		1집단	2집단	
	1집단	1.00	0.00	
	2집단	0.00	1.00	

2)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다음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에 따라 퇴직 이후 고용형태 변화를 제시한다.

먼저,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살펴본다.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 이후 1년부터는 모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퇴직 이후 2년까지 상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퇴직 이후 3년 이후에는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퇴직 이후 2년까지는 상용직, 임시·일용직의

순으로 고용형태를 보이며 퇴직 이후 3년부터는 임시·일용직, 상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의 순으로 고용형태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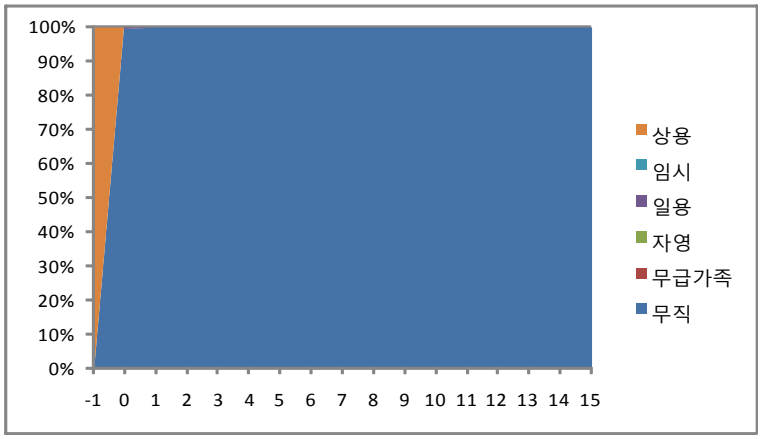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경우는 퇴직 이후 6년까지는 약 87%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여 높은 취업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역시 다른 상용직 퇴직자들처럼 재진입하는 고용형태가 상용직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상용직 다음으로는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의 순으로 고용형태 비율을 보인다.

이처럼, 상용직에서는 퇴직 자발성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는 비율이나, 고용형태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퇴직 이전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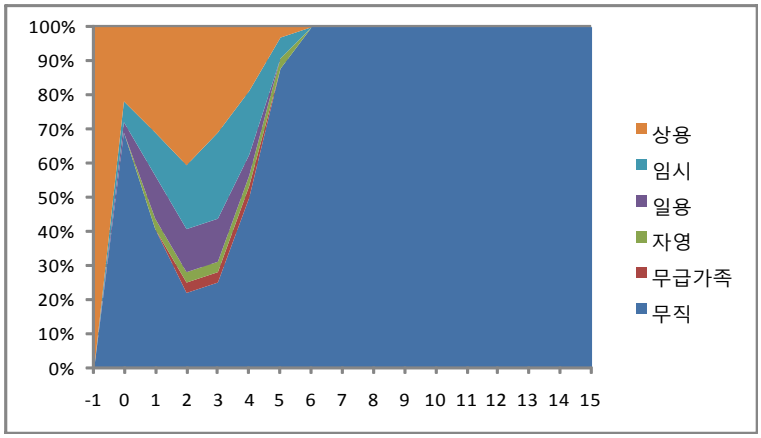
<표 27> 상용직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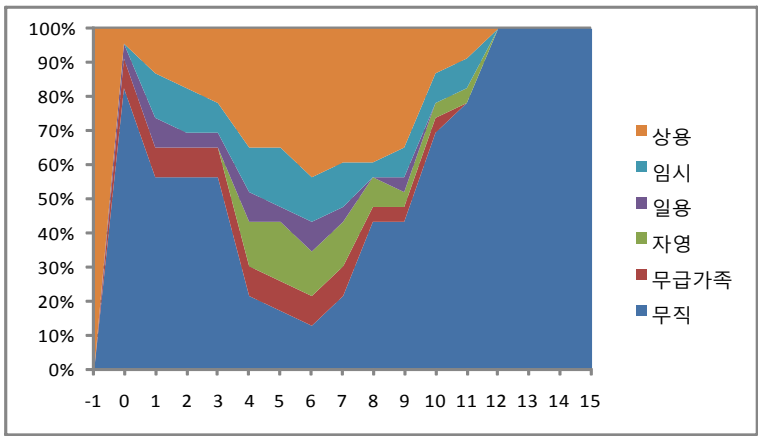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무직			99.43	100														
	무급가족																		
	자영																		
	일용			0.57															
	임시																		
	상용	176	100																
	계	176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무직			68.75	40.63	21.88	25.00	50.00	87.50	100									
	무급가족					3.13	3.13	3.13											
	자영				3.13	3.13	3.13	3.13	3.13										
	일용			3.13	12.50	12.50	12.50	6.25											
	임시			6.25	12.50	18.75	25.00	18.75	6.25										
	상용	32	100	21.88	31.25	40.63	31.25	18.75	3.13										
	계	32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무직			82.61	56.52	56.52	56.52	21.74	17.39	13.04	21.74	43.48	43.48	69.57	78.26	100			
	무급가족			8.70	8.70	8.70	8.70	8.70	8.70	8.70	8.70	4.35	4.35	4.35					
	자영							13.04	17.39	13.04	13.04	8.70	4.35	4.35	4.35				
	일용			4.35	8.70	4.35	4.35	8.70	4.35	8.70	4.35		4.35						
	임시				13.04	13.04	8.70	13.04	17.39	13.04	13.04	4.35	8.70	8.70	8.70				
	상용	23	100	4.35	13.04	17.39	21.74	34.78	34.78	43.48	39.13	39.13	34.78	13.04	8.70				
	계	23																	



[그림 25]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26]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27]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의 고용형태 변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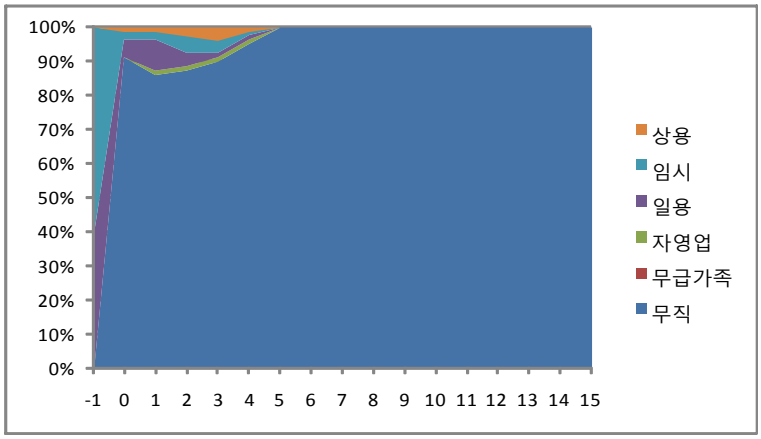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을 살펴보면, 퇴직 이후부터 1년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고 이후 퇴직 이후 5년이 되면 모두 은퇴하게 되는데, 아주 낮은 비율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다. 그리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임시.일용직, 상용직, 자영업의 순으로 고용형태의 비율을 보인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이 유형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퇴직 이후 5년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며, 이후로 은퇴가 증가하여 퇴직 이후 14년이 되면 모두 은퇴한다. 이들의 재진입 형태는 임시·일용직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상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의 순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을 보인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임시.일용직으로 재진입한 사람 중 중에서도 일용직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른 유형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거나, 임시직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왔으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도 일용직보다는 임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특성은 타 유형에 비해 퇴직 이후 은퇴까지 비교적 불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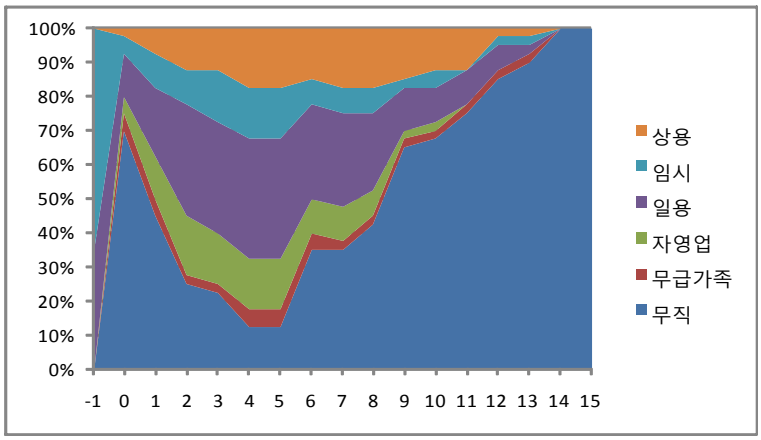
<표 28> 임시· 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임시. 일용직 비자발 퇴직- 은퇴 단기 분리형	무직			91.03	85.90	87.18	89.74	94.87	100										
	무급가족																		
	자영				1.28	1.28	1.28	1.28											
	일용	31	39.74	5.13	8.97	3.85	1.28	1.28											
	임시	47	60.26	2.56	2.56	5.13	3.85	1.28											
	상용			1.28	1.28	2.56	3.85	1.28											
	계	78																	
임시. 일용직 비자발 퇴직- 은퇴 장기 분리형	무직			70.00	45.00	25.00	22.50	12.50	12.50	35.00	35.00	42.50	65.00	67.50	75.00	85.00	90.00	100	
	무급가족			5.00	5.00	2.50	2.50	5.00	5.00	5.0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자영			5.00	12.50	17.50	15.00	15.00	15.00	10.00	10.00	7.50	2.50	2.50					
	일용	14	35.00	12.50	20.00	32.50	32.50	35.00	35.00	27.50	27.50	22.50	12.50	10.00	10.00	7.50	2.50		
	임시	26	65.00	5.00	10.00	10.00	15.00	15.00	15.00	7.50	7.50	7.50	2.50	5.00		2.50	2.50		
	상용			2.50	7.50	12.50	12.50	17.50	17.50	15.00	17.50	17.50	15.00	12.50	12.50	2.50	2.50		
	계	40																	



[그림 28] 임시· 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29] 임시· 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 은퇴유형의 노동시장 재진입 고용형태 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들 중에서 퇴직-은퇴 분리형으로 분류된 대상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자영업 퇴직자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노동시장을 재진입하게 되는 비율이 매우 작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도출된 결과 역시 이에 기반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자영업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 퇴직한 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종사하던 직종으로 가장 많이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자영업 퇴직자들은 그 퇴직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두 자영업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자영업 다음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순으로 재진입하는 형태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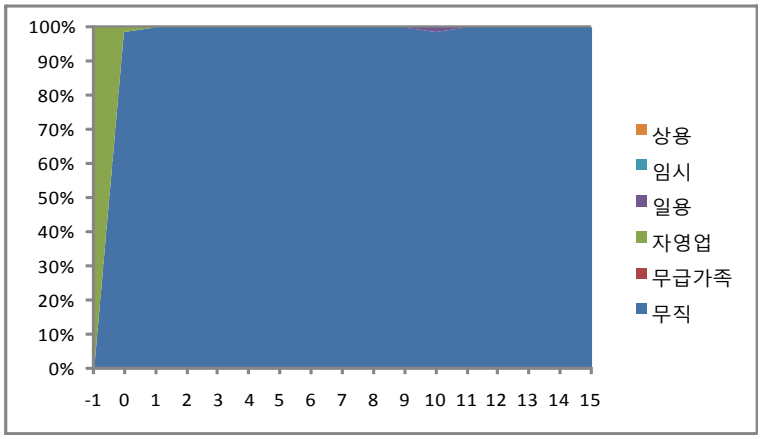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퇴직 경험이 그대로 은퇴로 연결되고 있으며,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3년까지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다 퇴직 이후 12년이 되면 모두 은퇴하게 된다.

그런데,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고용형태 변화에서 임시·일용직 중에서 일용직이 거의 없는데 반해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임시·일용직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자영업이나 상용직으로 재진입 했을 때에도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그 진입과 이탈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반해,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의 경우에는 그 진입과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나 실제로 자영업이나 상용직으로 재진입하게 되는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의 사람들은 퇴직 이후 8년에는 모두 은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8년부터는 임시·일용직 종사자 밖에 남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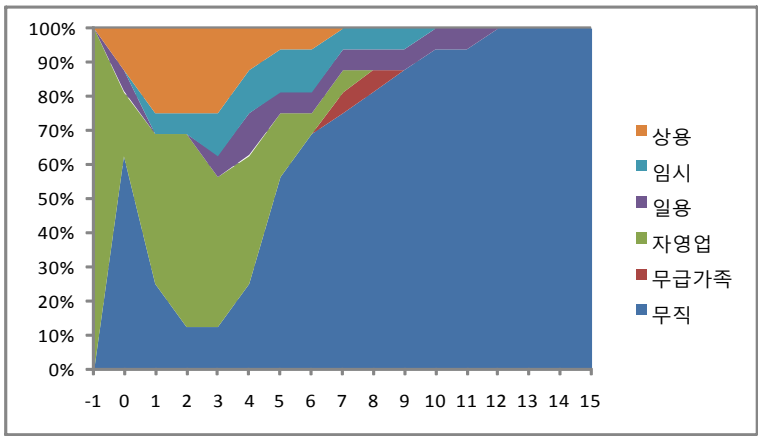
<표 29> 자영업 비자발적 퇴직자 유형별 고용형태 구성변화

(단위: 명, %)

유형	고용형태	사례수	퇴직 이후 시간경과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무직			98.46	100									98.46	100				
	무급가족																		
	자영	65	100	1.54															
	일용													1.54					
	임시																		
	상용																		
	계	65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무직			62.50	25.00	12.50	12.50	25.00	56.25	68.75	75.00	81.25	87.50	93.75	93.75	100			
	무급가족										6.25	6.25							
	자영	16	100	18.75	43.75	56.25	43.75	37.50	18.75	6.25	6.25								
	일용			6.25			6.25	12.50	6.25	6.25	6.25	6.25	6.25	6.25	6.25				
	임시				6.25	6.25	12.50	12.50	12.50	12.50	6.25	6.25	6.25						
	상용			12.50	25.00	25.00	25.00	12.50	6.25	6.25									
	계	16																	



[그림 30]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그림 31]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고용형태 구성변화

3)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자발적 퇴직자들의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따른 은퇴유형에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30>과 같이 나타난다.

<표 30>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모형 전체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형 전체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형 전체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성별	남성	73.16	73.86	68.75	73.91	44.92	39.74	55.00	55.56	55.38	56.25
	여성	26.84	26.14	31.25	26.09	55.08	60.26	45.00	44.44	44.62	43.75
출생코호트	1940년대 이전	28.57	34.66	6.25	13.04	21.19	28.21	7.50	18.52	20.00	12.50
	1940년대	56.28	48.86	75.00	86.96	59.32	51.28	75.00	43.21	44.62	37.50
	1950년대 이후	15.15	16.48	18.75	0.00	19.49	20.51	17.50	38.27	35.38	50.00
건강	좋음	35.50	39.20	25.00	21.74	15.25	15.38	15.00	16.05	15.38	18.75
	보통	36.36	31.82	56.25	43.48	37.29	39.74	32.50	29.63	29.23	31.25
	나쁨	28.14	28.98	18.75	34.78	47.46	44.87	52.50	54.32	55.38	50.00
교육수준	무학	6.06	5.11	12.50	4.35	13.56	17.95	5.00	14.81	16.92	6.25
	초등학교 졸	25.97	25.00	28.13	30.43	47.46	42.31	57.50	29.63	30.77	25.00
	중학교 졸	16.45	13.64	21.88	30.43	17.80	17.95	17.50	19.75	18.46	25.00
	고등학교 졸	26.41	26.70	31.25	17.39	15.25	16.67	12.50	25.93	24.62	31.25
	대학교 이상	25.11	29.55	6.25	17.39	5.93	5.13	7.50	9.88	9.23	12.50
가구주여부	가구주	79.65	78.41	81.25	89.96	68.64	65.38	75.00	67.90	67.69	68.75
	비가구주	20.35	21.59	18.75	13.04	31.36	34.62	25.00	32.10	32.31	31.25

성별에 있어서는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과 자영업 비자발 퇴직 집단은 남성의 비율이 각각 73.16%, 55.56%로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55.08%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는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이 여성의 비율이 60.25%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모든 종사상지위별 비자발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에서는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상지위의 비자발 퇴직 집단이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모형에 따라서는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과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 전체의 은퇴유형 모두가 1940년대 출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영업 비자발 퇴직 집단에서는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비자발 퇴직자 은퇴유형과 같이 1940년대 이전 출생이 44.62%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1950년대 이후 출생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보통이 36.36%로 가장 높았지만,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퇴직자의 경우 나쁨이 각각 47.46%, 5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상지위별 자발 퇴직자의 결과와 같다. 은퇴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나쁨이 다른 상태(보통, 좋음)보다 높은 은퇴유형은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44.87%)],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52.5%)],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55.38%)],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5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없었으며,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좋음 39.20%,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서는 보통이 각각 56.25%, 4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퇴직 집단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에 비해 은퇴 이후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이 26.41%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과 자영업 비자발 퇴직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47.46%, 2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대학교 이상이 29.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26.7%), 초등학교 졸업(25%), 중학교 졸업(13.64%), 무학(5.11%)의 순으로 나타났고,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고등학교 졸업(31.25%), 초등학교 졸업(28.13%), 중학교 졸업(21.88%), 무학(12.5%), 대학교 이상(6.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30.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이상이 동일하게 17.38%, 무학이 4.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42.31%), 무학과 중학교 졸업(17.95%), 고등학교 졸업(16.67%), 대학교 이상(5.13%)의 차례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초등학교 졸업(57.5%), 중학교 졸업(17.5%), 고등학교 졸업(12.5%), 대학교 이상(7.5%), 무학(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초등학교 졸업(30.77%), 고등학교 졸업(24.62%), 중학교 졸업(18.46%), 무학(16.92%), 대학교 이상(9.23%)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고등학교 졸업(31.25%),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25%), 대학교 이상(12.5%), 무학(6.2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여부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직 집단과 같이 모든 은퇴유형에서 가구주인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은 가구주인 비율이 79.65%, 임시·일용직은 68.64%, 자영업은 67.9%로 나타났다. 은퇴모형에 따른 가구주 비율은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78.41%,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81.25%,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89.96%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65.38%,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75%였으며,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67.69%,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68.75%였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가구주의 비율에서는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집단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별 경제적 특성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경제적 특성을 <표 31>에 제시하였다.

<표 31>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퇴직자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모형 전체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형 전체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형 전체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소득										
개인총소득	1922.6	2047	1492	1570	1109.3	960.6	1399.1	1386.5	1324.7	1654.3
근로소득	2664.7	2826	1151.1	2282.5	1981.3	1686.1	2424	2717.3	2868.9	2221
금융소득	347.3	323.6	411.7	450	646.6	639.1	666.7	224.5	276	138.7
부동산소득	678.5	693.6	455	871	871.1	640	1680	743.2	580.6	1800
사회보험	1341.7	1540	997.9	321.8	401	425.8	372.5	493.8	420.2	813
이전소득	424.3	381.4	437.6	783.5	357.3	352.7	368.9	538.1	483.5	765.7
기타	4213.1	4514.2	.	300	201.7	222.5	160	1800	1800	.
가구총소득	3124.3	3300.7	2483.1	2667.2	1827	1535.6	2395.3	2440.3	2349.4	2834.2
가구총소득-근로소득	1774.6	1938.6	1276.1	1127.2	638	609.8	699.7	1071.7	867.1	1291.6
자산										
부동산자산	21972	22116.7	12584.4	39500	10758.6	10988.1	10156.3	25195.7	23161.5	32751.1
금융자산	4771	5178.4	4141.4	2957.7	4536.7	4966.3	3911.8	4014.6	4432.4	2500
가구총자산	16253.8	16549.3	11698.4	20850	8072.2	9062.1	6435	19215.6	18268.5	22659.8
가구부채	6390.1	6922.4	5460	4475	4004.4	3840	4333.3	9524.5	7088.5	18572.6
순가구자산	12291.1	12571.6	7798.5	16771.1	4186.5	4652.1	3300.3	11094.8	11384.2	9937.5

먼저, 소득구성에서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은 가구총소득이 3124.3만원,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은 1827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 집단은

2440.3만원으로 종사상지위별 자발적 퇴직 집단의 결과와 같이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의 가구총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도 그 순서가 가구총소득과 동일하게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1774.6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 집단(1071.7만원),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638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가구총소득을 가진 은퇴유형이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으로 이들의 가구 총소득은 3300.7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가구총소득이 높은 은퇴유형은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2834.2만원,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2667.2만원,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2483.1만원,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2395.3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2349.4만원의 순이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가구총소득이 1535.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했을 때의 소득은 가구총소득과는 약간 다른 순서를 보이고 있다.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은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1938.6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1291.6만원,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1276.1만원,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1127.2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867.1만원,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699.7만원,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609.8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에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 집단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던 퇴직-은퇴 분리형의 소득구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산구성에서는 상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의 순가구자산이 12291.1만원,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 집단의 순가구자산이 4186.5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 집단의 순가구자산이 11094.8만원으로 자발적 퇴직 집단과 같이 임시·일용직 퇴직 집단의 경제적 특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의 순가구자산은 12571.6만원,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7798.5만원,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16771.1만원,[임시·일용직 비자발 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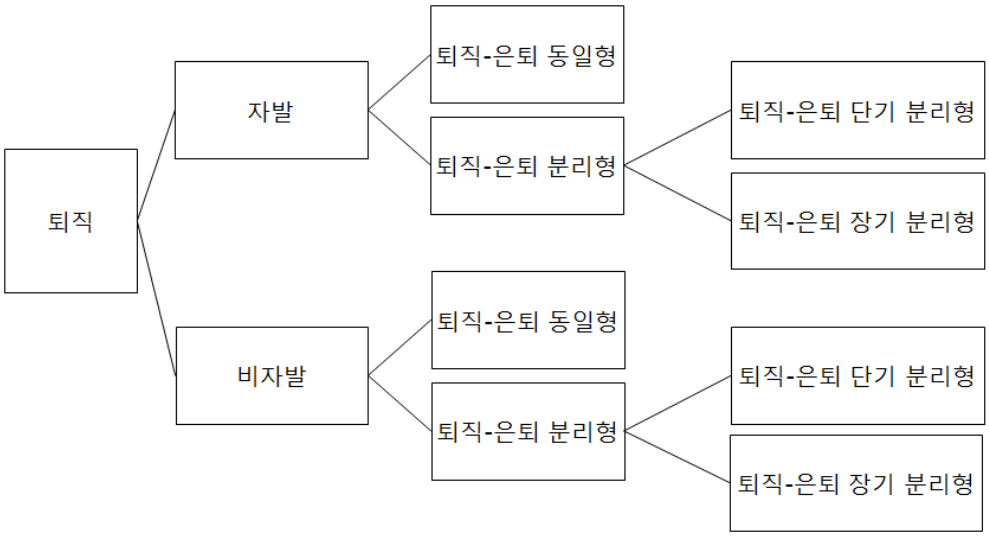
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4652.1만원,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은 3300.3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은 11384.2만원,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9937.5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 은퇴유형의 자산구성 특징은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비자발 퇴직 집단은 퇴직 이후 바로 은퇴하는 퇴직-은퇴 동일형의 순가구자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경제적 특성들을 종합했을 때,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경제적 특성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노동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매우 낮은 경제적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소결

1. 은퇴유형분석 결과

전체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중.고령기의 퇴직 경험이 그대로 은퇴로 이어지는 “퇴직-은퇴 동일형”과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다가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퇴직-은퇴 분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자를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로 구분하여 은퇴유형을 분석했을 때는, “퇴직-은퇴 동일형”과 노동시장 재진입 이후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에 따라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아래 [그림 32]과 같은 구분에 따라 퇴직 경험자의 은퇴유형구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2] 은퇴유형 구분 기준

다음은 앞서 분석한 은퇴유형 분석에서 최적모형별 비율을 정리하여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32> 최적모형별 집단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자발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퇴직-은퇴 분리형		퇴직-은퇴 동일형	퇴직-은퇴 분리형		퇴직-은퇴 동일형	퇴직-은퇴 분리형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전체	66.2	33.8		76.8	14.0	9.2	71.2	17.1	11.7
상용직	-			77.6	22.4		76.1	13.9	10.0
임시·일용직	-			76.2	23.8		-	65.6	34.4
자영업	-			78.2	21.8		80.2	19.8	

전체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76.8%가 퇴직-은퇴 동일형이고, 전체 비자발 퇴직자의 경우, 71.2%가 퇴직-은퇴 동일형으로 자발적 퇴직자가 퇴직 이후 바로 은퇴하게 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를 퇴직 이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자발적 퇴직자의 최적모형 비율에서는 퇴직-은퇴 동일형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 순서를 보면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 78.2%로 가장 높고,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 77.6%, [임시·일용직 퇴직-은퇴 동일형]이 76.2%의 차례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직자와 반대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최적모형 비율에서는 자발적 퇴직자의 최적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의 차이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을 제외[12]한 비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은퇴 동일형에서는 자발적 퇴직자들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하게 자영업 퇴직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으로 80.2%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76.1%)]의 차례로 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령기의 퇴직이 은퇴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자영업 집단이며, 퇴직 이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

12)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퇴직-은퇴 동일형 없이 퇴직-은퇴 분리형으로만 구분된다.

이 임시·일용직 종사자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은퇴유형별 고용형태 특성

각 은퇴유형의 특성을 <표 33>을 통해 요약제시 하였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 퇴직 자발성여부와 노동시장 재진입의 차이가 나타나는 퇴직-은퇴 분리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33> 최적모형별 특성 요약

구분				재진입 감소시점 (퇴직 이후 n)	은퇴시기 (퇴직 이후 n)	재진입 고용형태 비율
전체		퇴직-은퇴 동일형		1년	5년	임시·일용>상용>자영>무급가족
전체		퇴직-은퇴 분리형		2년	15년 이상	상용>임시·일용>자영>무급가족
자발	자발 (전체) 퇴직자	퇴직-은퇴 동일형		0 (퇴직시점)	0 (퇴직시점)	
자발	자발 (전체) 퇴직자	퇴직-은퇴 분리형	단기	2년	6년	임시·일용>상용>자영>무급가족
자발	자발 (전체) 퇴직자	퇴직-은퇴 분리형	장기	6년	12년	상용>자영>임시·일용>무급가족 (* 0-1년: 자영>상용>임시·일용>무급가족) (* 6-9년: 임시·일용>상용>무급가족)
자발	상용직 자발 퇴직자	퇴직-은퇴 동일형		2년	5년	
자발	상용직 자발 퇴직자	퇴직-은퇴 분리형		2년	12년	상용>임시·일용>자영>무급가족
자발	임시·일용직	퇴직-은퇴 동일형		0	1	
자발	임시·일용직	퇴직-은퇴 분리형		1	12	임시·일용>상용>자영>무

구분				재진입 감소시점 (퇴직 이후 n)	은퇴시기 (퇴직 이후 n)	재진입 고용형태 비율
	자발 퇴직자					급가족 (*2-4년: 상용>임시·일용>자영>무급가족)
	자영업 자발 퇴직자	퇴직-은퇴 동일형		0	1	
		퇴직-은퇴 분리형		2	12	자영>상용>임시·일용>무급가족
비자발	비자발 (전체) 퇴직자	**퇴직-은퇴 동일형**		**0**	**1년**	
		퇴직-은퇴 분리형	**단기**	**2년**	**7년**	**임시·일용>상용>자영>무급가족**
			장기	**7년**	**14년**	**임시·일용>상용>자영>무급가족**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	퇴직-은퇴 동일형		0	1년	
		퇴직-은퇴 분리형	단기	2년	6년	상용>임시·일용>자영업≒무급가족
			장기	6년	12년	상용>임시·일용>자영>무급가족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	퇴직-은퇴 분리형	단기	1	5	임시·일용>상용>자영 (무급가족X)
			장기	5	14	임시·일용>상용>자영>무급가족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	퇴직-은퇴 동일형		0	1	
		퇴직-은퇴 분리형		3	12	자영>상용>임시·일용>무급가족

<표 33>에서 구분하고 있는 '재진입 감소시점'이란 50세 이후 중·고령기에 퇴직을 경험한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느 시점까지 증가하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지를 나타낸 시점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가장 증가했을 시기로 볼 수 있다. '은퇴시기'는 각 최적 모형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모두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시점을 은퇴시기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재

진입 고용형태 비율'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은퇴할 때까지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어떠한 고용형태 비율을 이루고 있는지 그 순서를 기록하였다.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를 비교했을 때, 자발적 퇴직자에 비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노동시장 재진입이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은퇴시기도 더 늦게 나타난다. 노동시장 재진입시 고용형태 비율에 있어서는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모두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분리형]에서는 상용직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은퇴 분리형에서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별 '재진입 감소시점'은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과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이 동일하게 퇴직 이후 2년이 지나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은퇴시기'는 직종에 상관없이 자발적 퇴직자들의 퇴직-은퇴 분리형 모두 퇴직 이후 12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고용형태 비율'에 있어서는 퇴직 이전의 종사상지위가 퇴직 이후에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의 순으로 고용형태 비율을 보였으며,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임시·일용직, 상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순으로 퇴직 이후의 고용형태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은 자영업, 상용직, 임시·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의 차례로 노동시장 재진입 고용형태 비율을 보였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은퇴 분리형에서는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별 최적 모형이 장·단기로 나누어진 모형이 있어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은퇴 분리형의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별 '재진입 감소시점'은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이 퇴직 이후 6년으로 가장 늦고,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이 퇴직 이후 5년,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이 퇴직 이후 3년부터 노동시장 재진입이 감소하게 된다. ‘은퇴시기’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이 퇴직 이후 14년으로 가장 늦게 은퇴하고([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퇴직 이후 5년),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과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이 퇴직 이후 12년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은 퇴직 이후 6년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은퇴 분리형에서 ‘재진입 고용형태 비율’은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은퇴 분리형과 같이 퇴직 이전 종사했던 종사상지위로 가장 많이 재진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 34>, <표 35>와 같다.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비자발적 퇴직자는 자발적 퇴직자와 반대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출생코호트에서는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 모두 1940년대 생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에서 자발적 퇴직자는 1940년대 생이 37.58%, 비자발적 퇴직자는 1940년대 생이 53.63%를 차지했다. 건강에서도 나쁨, 보통, 좋음의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이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주 여부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직자가 가구주인 비율이 56.21%, 비자발적 퇴직자가 가구주인 비율이 70.51%를 보였다.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직자는 임시·일용직이, 비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이 가장 많다.

<표 34> 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자발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모형 전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상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자영업 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성별	남성	36.65	36.36	31.11	47.46	43.17	46.15	38.51	30.43	47.37	54.05
	여성	63.35	63.64	68.89	52.54	56.83	53.85	61.49	69.57	52.63	49.95
출생코호트	1940년대 이전	31.37	38.18	11.11	5.08	28.06	12.82	35.81	8.70	39.10	2.70
	1940년대	37.58	32.12	45.56	71.19	37.41	38.46	27.03	63.04	34.59	64.86
	1950년대 이후	31.06	29.70	43.33	23.73	34.53	48.72	37.16	28.26	26.32	32.43
건강	좋음	24.53	22.22	25.56	42.37	34.46	43.03	23.65	21.74	20.30	29.73
	보통	34.47	33.13	42.22	33.90	37.41	38.46	27.70	46.65	31.58	40.54
	나쁨	40.99	44.65	32.22	23.73	38.13	20.51	48.65	32.61	48.12	29.73
학력	무학	20.50	21.01	17.78	20.34	10.07	7.69	19.59	34.78	18.05	16.22
	초등학교 졸	31.68	32.73	27.78	28.81	28.78	25.64	38.51	32.61	30.83	21.62
	중학교 졸	17.39	17.37	18.89	15.25	18.71	23.08	16.22	10.87	22.56	18.92
	고등학교 졸	21.12	21.21	18.89	23.73	30.22	20.51	20.95	13.04	17.29	24.32
	대학교 이상	9.32	7.68	16.67	11.86	12.23	23.08	4.73	8.70	11.28	18.92
가구주여부	가구주	56.21	55.56	55.56	62.71	56.12	71.79	60.14	58.70	67.67	64.86
	비가구주	43.79	44.44	44.44	37.29	43.88	28.21	39.86	41.30	32.33	35.14
종사상지위	상용직	27.73	26.52	36.67	24.14	-	-	-	-	-	-
	임시·일용직	30.21	29.35	28.89	39.65						
	자영업자	26.48	26.72	26.67	24.14						
	무급가족 종사자	15.58	17.41	7.78	12.07						

<표 35> 비자발적 퇴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자발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모형 전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상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자영업 비자발 퇴직-은퇴 분리형
성별	남성	57.69	57.49	53.75	64.81	73.86	68.75	73.91	39.74	55.00	55.38	56.25
	여성	42.31	42.51	46.25	35.19	26.14	31.25	26.09	60.26	45.00	44.62	43.75
출생코호트	1940년대 이전	25.21	30.84	13.75	7.41	34.66	6.25	13.04	28.21	7.50	20.00	12.50
	1940년대	53.63	47.01	58.75	87.04	48.86	75.00	86.96	51.28	75.00	44.62	37.50
	1950년대 이후	21.15	22.16	27.50	5.56	16.48	18.75	0.00	20.51	17.50	35.38	50.00
건강	좋음	25.85	29.04	17.50	18.52	39.20	25.00	21.74	15.38	15.00	15.38	18.75
	보통	34.83	31.74	46.25	37.04	31.82	56.25	43.48	39.74	32.50	29.23	31.25
	나쁨	39.32	39.22	36.25	44.44	28.98	18.75	34.78	44.87	52.50	55.38	50.00
학력	무학	11.11	11.68	11.25	7.41	5.11	12.50	4.35	17.95	5.00	16.92	6.25
	초등학교 졸	33.76	32.63	33.75	40.74	25.00	28.13	30.43	42.31	57.50	30.77	25.00
	중학교 졸	16.88	14.97	18.75	25.93	13.64	21.88	30.43	17.95	17.50	18.46	25.00
	고등학교 졸	22.44	22.16	28.75	14.81	26.70	31.25	17.39	16.67	12.50	24.62	31.25
	대학교 이상	15.81	18.56	7.50	11.11	29.55	6.25	17.39	5.13	7.50	9.23	21.50
가구주여부	가구주	70.51	67.96	75.00	79.63	78.41	81.25	89.96	65.38	75.00	67.69	68.75
	비가구주	29.49	32.04	25.00	20.37	21.59	18.75	13.04	34.62	25.00	32.31	31.25
종사상지위	상용직	49.46	52.85	42.50	38.89	-	-	-	-	-	-	-
	임시·일용직	25.27	17.42	41.25	50.00							
	자영업자	17.34	19.52	13.75	9.26							
	무급가족 종사자	7.92	10.21	2.50	1.85							

다음으로,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제적 특성을 <표 36>에 요약 제시하였다.

소득구성에 있어 자발적 퇴직자의 가구총소득은 2840.1만원이며, 비자발적 퇴직자의 가구총소득은 2640.7만원으로 자발적 퇴직자의 가구총소득이 더 높으며,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도 자발적 퇴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자발적 퇴직자: 1310.6만원, 비자발적 퇴직자: 1284만원). 그리고 자산에서는 자발적 퇴직자의 순가구자산이 7233.9만원이고 비자발적 퇴직자의 순가구자산이 9497만원으로 자발적 퇴직자의 자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따른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용직 자발 퇴직자의 경우, 가구총소득이 3073.7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1478.2만원, 순가구자산이 7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의 경우에는 가구총소득이 3124.3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1774.6만원, 순가구자산이 1229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직의 경우 자발적 퇴직자에 비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에는 정년퇴직과 같은 강제퇴직자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시·일용직 퇴직자의 경우, 자발적 퇴직자의 경제적 특성에서 가구총소득이 2467.4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011.8만원, 순가구자산이 4650.1만원인 반면, 비자발적 퇴직자는 가구총소득이 1827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638만원, 순가구자산이 41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시·일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시·일용직 종사자들에 비해 더 낮은 경제적 수준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영업 퇴직자의 경우, 자발적 퇴직자의 경제적 특성에서 가구총소득이 3073.9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뺀 소득이 1636.2만원, 순가구자산이 9189.9만원이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특성은 가구총소득이 2440.3만원,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1071.7만원, 순가구자산은 11094.8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퇴직자는 소득구성에

서는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한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자산 구성에서는 비자발적 퇴직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지위와 자발성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임시·일용직의 비자발 퇴직 집단이 가장 낮은 경제적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알 수 있다.

<표 36> 종사상지위별 퇴직자발성에 따른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 - 근로소득	순가구자산
전체	전체 퇴직자	2663.4	1241.1	7785.5
자발	(전체) 자발 퇴직자	2840.1	1310.6	7233.9
	상용직 자발 퇴직자	3073.7	1478.2	7303.3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2467.4	1011.8	4650.1
	자영업 자발 퇴직자	3073.9	1636.2	9189.9
비자발	(전체) 비자발 퇴직자	2640.7	1284	9497
	상용직 비자발 퇴직자	3124.3	1774.6	122911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	1827	638	4186.5
	자영업 비자발 퇴직자	2440.3	1071.7	11094.8

제5장 은퇴유형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기서는 앞서 제시된 은퇴유형별 특성 중에서 어떠한 특성이 은퇴유형을 구분 짓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대해 두 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제4장에서 은퇴유형을 분석할 때는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를 사전에 구분하여 은퇴유형을 분석했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을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앞서, 퇴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퇴직 자발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 분석은 퇴직 자발성 여부가 가져오는 결과뿐만 아니라, 퇴직 자발성을 구분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제1절 퇴직의 자발성 영향요인

퇴직 자발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퇴직 자발성 여부에 대한 이분형 종속변수를 가짐에 따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7>은 퇴직자발성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자발적 퇴직이 되고, 자발적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로는 성별,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주여부,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를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로는 성별,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였다. 건강상태와 가구주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상태와 가구주여부는 퇴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퇴직 당시 종사상지

위, 성별,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등이 퇴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퇴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odds ratio)이 7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에서는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집단에 비해서, 1940년대에 태어난 집단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43.0%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코호트가 1940년대 생인 집단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인 집단에 비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각각 38.8%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무학인 집단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38.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남성이 50대까지 임금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고, 50대 이후에도 임금이 지속적으로 급상승하는 연공임금 문제로 인하여 대졸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퇴직(강제퇴직)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측한 지은정(2011)의 연구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또한 김종원(2011)의 연구에서도 중졸이하의 퇴직자가 비자발적 퇴직자가 많으며, 중졸, 고졸에서는 비자발적 퇴직자가 감소하다가 대졸 이상에서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퇴직 당시 직종이 자발적 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다 퇴직한 집단에 비해서 자영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집단은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37.0% 높게 나타난 반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다 퇴직한 집단에 비해 상용직에 종사하다 퇴직한 집단은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46.8% 낮게 나타났다.

<표 37> 퇴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Wald	Exp(B)
성별 (여성)		.570	.180	9.969	1.768**
출생코호트 (기준:1940년대 이전)	1940년대	-.562	.159	12.501	.570***
	1950년대 이상	.075	.192	.153	1.078
건강상태 (기준: 나쁨)	보통	.012	.152	.006	1.012
	좋음	.192	.173	1.223	1.211
교육수준 (기준: 무학)	초등학교졸	-.492	.211	5.459	.612*
	중학교졸	-.341	.247	1.908	.711
	고등학교졸	-.302	.244	1.535	.740
	대학교 이상	-.480	.280	2.938	.619+
가구주여부 (비가구주)		.143	.179	.641	1.154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 (기준: 임시·일용)	무급가족	.126	.242	.274	1.135
	자영업	.314	.186	2.866	1.369+
	상용	-.634	.164	14.962	.531***
상수		.653	.240	7.415	1.921**

주 1) -2LL=1391.504, X^2=118.166***, cox&snell R^2=.101, N=1,112
주 2) +p<.10, *p<.05; **p<.01; ***p<.001

제2절 퇴직자발성에 따른 은퇴유형 영향요인

1. 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영향요인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전체 퇴직자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에 대해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자발적 퇴직자는 퇴직-은퇴 동일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 따라,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 기준범주가 된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성별, 출생코호트와 건강상태, 교육수준,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로 나타났다.

성별은 그 영향이 약하지만, 남성일 경우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odds ratio)이 여성에 비해 약 45% 낮게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퇴직 집단은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이나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1940년대 이전 출생한 퇴직 집단에 비해 약 8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에 출생한 퇴직 집단은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1950년대 이후 출생한 퇴직 집단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에 비해 69.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은퇴 유형과 현재(조사시점)의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은 과거 퇴직 이후 노동시장을 빨리 이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은퇴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은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일 가능성이 초등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각각 57.9%, 5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자발적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에서는 그 영향이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상용직에 종사했던 퇴직 집단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에 비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퇴직한 집단에 비해 59.1% 높았다.

<표 38> 자발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성별								
여성								
남성	-.596	.348	2.937	.551+	.209	.449	.217	1.233
출생코호트								
1950년 이후								
1940년 이전	-1.662	.426	15.217	.190***	-2.039	.689	8.758	.130**
1940년대	.004	.280	.000	1.004	.888	.363	5.991	2.429*
건강상태								
좋음								
나쁨	-.260	.334	.609	.771	-1.193	.397	9.020	.303**
보통	.191	.310	.381	1.211	-.472	.356	1.758	.624
교육수준								
대졸이상								
무학	-.221	.496	.198	.802	.656	.626	1.097	1.927
초졸	-.865	.419	4.258	.421*	.010	.554	.000	1.010
중졸	-.685	.430	2.536	.504	-.136	.581	.055	.873
고졸	-.826	.425	3.777	.438+	.018	.543	.001	1.018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주	.458	.310	2.175	1.580	.504	.435	1.347	1.656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								
상용								
무급가족	-.895	.472	3.593	.409+	.142	.550	.067	1.153
자영	-.254	.308	.680	.776	-.027	.419	.004	.973
임시·일용	-.270	.308	.767	.763	.581	.397	2.138	1.788

주 1) -2LL=548.380, X^2=100.598***, cox&snell R^2=.145, N=644
주 2) +p<.10; *p<.05; **p<.01; ***p<.001

2. 비자발적 퇴직자 은퇴유형 영향요인

다음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표 34>와 같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 역시,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같이 퇴직-은퇴 동일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음에 따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준이 된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구주여부가 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퇴직 집단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odds ratio)이 1940년대 이전 출생한 퇴직 집단에 비해 7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퇴직한 집단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1940년대 출생한 퇴직 집단에 비해 약 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건강상태의 경우, 자발적 퇴직자와 달리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이나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을 빨리 이탈했었다면,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이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는 결과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은퇴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퇴직 집단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는 결과를 보인다.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일 가능성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퇴직 집단은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퇴집 집단에 비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퇴직집단이 대학졸업 이상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던 집단이 노동시장을 비교적 이르게 이탈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이다.

비자발적 퇴직자가 가구주인 경우,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보다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비가구주인 집단에 비해 90.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자발적 퇴직자와 달리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에 종사했던 퇴직 집단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에 비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용직 종사자로 퇴직한 집단에 비해 각각 약 1.5배, 약 3배 높았다.

<표 39> 비자발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성별								
여성								
남성	-.266	.356	.561	.766	.457	.450	1.031	1.579
출생코호트								
1950년 이후								
1940년 이전	-1.229	.444	7.673	.293**	-.034	.819	.002	.966
1940년대	-.093	.341	.075	.911	2.216	.658	11.343	9.170***
건강상태								
좋음								
나쁨	.522	.390	1.794	1.685	.666	.456	2.137	1.947
보통	.989	.369	7.180	2.689**	.909	.453	4.030	2.481*
교육수준								
대졸이상								
무학	.821	.642	1.637	2.273	-.128	.773	.027	.880
초졸	.845	.522	2.625	2.329	.496	.565	.770	1.642
중졸	1.062	.552	3.697	2.893+	1.254	.583	4.618	3.504*
고졸	1.159	.512	5.115	3.187*	.010	.606	.000	1.010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주	.703	.383	3.359	2.019+	.287	.498	.333	1.333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								
상용								
무급가족	-1.145	.790	2.105	.318	-.888	1.098	.654	.411
자영	-.397	.404	.963	.673	-.301	.557	.292	.740
임시·일용	0.924	.317	8.486	2.519**	1.400	.385	13.236	4.057***

주 1) -2LL=422.263, X^2=111.702***, cox&snell R^2=.213, N=468
주 2) +p<.10; *p<.05; **p<.01; ***p<.001

제3절 소결

자발적 퇴직과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발적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퇴직 당시 종사상지위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았고, 출생 코호트에서는 1940년대에 출생한 사람보다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에 비해 무학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임시·일용직에 비해서는 자영업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상용직에 비해서는 임시·일용직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가 있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주여부,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기준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동일형] 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생코호트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과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194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 비해서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에 비해 좋은 사람이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분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교육수준에는 초

등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 이전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무급가족 종사자에서 퇴직한 사람에 비해 [전체 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기준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동일형]이 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출생코호트에서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에 비해 보통인 사람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에 비해 중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교육수준의 사람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가구주일 경우,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다 퇴직한 사람이 상용직에서 퇴직한 사람에 비해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단기 분리형]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중·고령기의 퇴직 경험 이후 은퇴까지의 고용상태 변화를 통해 은퇴유형을 분석했을 때, 은퇴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퇴직 경험이 그대로 은퇴로 이어지게 되는 퇴직-은퇴 동일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퇴직 경험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점진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퇴직-은퇴 분리형이다. 그리고 퇴직-은퇴 분리형은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얼마나 남아있는가에 따라 단기형과 장기형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로,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유형을 분석했을 때, 자발적 퇴직 집단에 비해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재진입한 노동시장에서 은퇴시기 또한 더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진입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 변화에 있어, 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퇴직자는 임시·일용직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세 번째, 자발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 분석대상을 다시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따라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을 추가 분석했을 때, 종사상지위에 따라 은퇴유형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자발적 퇴직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은퇴유형에서 은퇴시기는 상용직 자발 퇴직자, 임시·일용직 자발 퇴직자, 자영업 자발 퇴직자 모두 퇴직 이후 12년에 은퇴하게 되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비자발 퇴직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은퇴유형에서는,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자가 가장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직자의 결과와 동일하게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로 다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넷째, 은퇴유형분석에 따라 도출된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과, 퇴직 이전의 종사상지위도 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 변수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중·고령기의 퇴직 경험에 있어 자발성 여부를 고려하여 이들의 은퇴유형을 분석하였다. 중·고령기의 퇴직은 개인에게 위험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퇴직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그 위험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중·고령기에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완전히 벗어나게 될 때까지 고용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유형화하여 그러한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 분석을 통해 비자발적 퇴직자의 취약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론적 근거로,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는 퇴직 이후 고용형태 변화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퇴직 이후 은퇴시기에 있어 비자발적 퇴직자가 자발적 퇴직자보다 더 늦게 은퇴하고 있으며, 은퇴까지의 고용형태 변화도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전체 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과 [전체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에서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서도 상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임시·일용직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정년퇴직을 제외한 비자발적 퇴직은 퇴직에 대한 준비 없이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어 퇴직 이후의 고용상태가 자발적 퇴직자에 비해 불안정한 상황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가 퇴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며, 비자발적 퇴직의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직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퇴직 이전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던 집단이다. [임시·일용직 비자발 퇴직-은퇴 장기 분리형]의 특성을 보면, 이들은 다른 종사상지위의 퇴직자에 비해 퇴직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 머

무르지만, 은퇴 이후 경제적상황, 건강상태 등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함의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년 60세 의무화의 정착 및 퇴직지원체계가 마련해야 한다. 정년 의무화가 정착되면, 근로자가 퇴직에 대해 인지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수 있으며, 퇴직 이전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통해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자발적 퇴직에서 취약한 집단인 임시·일용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훈련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있으며, 퇴직 이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이미 은퇴하게 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퇴직은 퇴직 이후의 노동 궤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은퇴 이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으로서 개인이 퇴직에 대한 자발성을 획득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동생애에 걸친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고령자의 은퇴유형에 있어, 노동시장 특성 이외의 다양한 은퇴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고령기 퇴직을 경험한 대상의 은퇴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퇴직 이후 은퇴까지의 고용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은퇴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은 은퇴유형을 노동시장 특성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분석에도 나타나듯이, 상용직에서 퇴직한 분석대상의 경우 퇴직의 자발성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더라도 높은 경제적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형태만으로 은퇴유형을 구분할 경우, 이들의 퇴직 이후의 삶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에 은퇴유형 분석에서는 노동시장 특성 이외에 다양한 특성을 함께 고려한 은퇴유형을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권문일 (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 후 근로행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8, 41-66.

권승 · 황규선 (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69-90.

김종원 (2011). 자발적 ·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근로자 특성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경 (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김태근 (2006). 회귀분석. 인간과복지.

김태훈 · 박용현 (2010). 실직경험이 중·고령노동자의 실직 이후 일자리 경로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25.

김혜연 (2010).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의 생애 노동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코호트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141-169.

민현주 (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집단중심추세모형 (Group-based Trajectory Model) 의 적용. 한국사회학, 46(2), 61-87.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2(3), 291-327.

방하남 · 강석훈 · 신동균 · 안종범 · 이정우 (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01.

_____ · 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분석. 한국사회학, 45(1), 73-108.

_____ · 어수봉 · 유규창 · 이상민 · 하갑래 (2012).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5.

석상훈 (2011). 고령은퇴자의 퇴직과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응용경제, 13(3), 269-295.

손종칠 (2010).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10(2), 125-154.

신동균(2009).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9(2), pp. 1-41.

윤윤구 · 박성재 (2008).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8-05. 한국노동연구원.

이상문 (2011). 청소년 비행궤적에 rhiks한 두 가지 모델의 검증: 집단기반 궤적 모델과 성장혼합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5(2), 172-220.

이승원 · 김동배 · 이주연 (2008). 중 · 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07-125.

전선영 (2013). 청소년 탈비행 발달궤적 유형과 예측변인.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장지연 · 부가청 · 이혜정 · 신현구 · 이철희 · 장숙랑 · 조성일 · Lisa F. Berkman (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03.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지은정 (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58(3), 135-168.

_____ (2011). 임금근로자의 강제퇴직에 대한 연구 -임금과 근속기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4), 295-327.

최문정 (2005). 고령근로자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주된 일자리와 은퇴과정 계층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옥금 (2011).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과정에 관한 연구: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1), 15-31.

통계청 (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한경혜 (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86-118.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홍백의 · 김혜연 (2010). 중 · 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Dorn, D., & Sousa-Poza, A. (2005). Early retirement: free choice or forced decision?. CESifo Working Paper No. 1542.

Fields, Gary S. & Mitchell, Olivin S. (1984). Retiremen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London; The MIT Press.

Gustman, A. L., & Steinmeier, T. L. (1981). Partial retirement and the analysis of retirement behavior. NBER WORKING PAPER NO.763.

Henretta, J. C., Chan, C. G., & Angela, M. (1992). Retirement reason versus retirement process: Examining the reasons for retirement typology. Journal of gerontology, 47(1), S1-S7.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Malo, M. A., & Muñoz-Bullón, F. (2008). Long-term effects of involuntary job separations on labour careers. *Journal of Socio-Economics*, 37(2), 767-788.

Mutchler, J. E., Burr, J. A., Pienta, A. M., & Massagli, M. P. (1997). Pathways to labor force exit: Work transitions and work instabilit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2(1), S4-S12.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10).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 Overview.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Springer New York, 53-67.

OECD (2006). Live Longer, Work Longer, OECD Publishing.

OECD (2013). OECD Economic Surveys: Belgium 2013. OECD Publishing.

Palmore, E. B., Burchett, B. M., Fillenbaum, G. G., George, L. K., & Wallman, L. M. (1985). Retirement: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Shultz, K. S., Morton, K. R., & Weckerle, J. R. (1998). The influence of push and pull factors on voluntary and involuntary early retirees' retirement decis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1), 45-57.

Szinovacz, M. E., & Davey, A. (2005). Predictors of perceptions of involuntary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5(1), 36-47.

Tang, F., Choi, E., & Goode, R. (2013). Older Americans Employment and Retirement. Ageing International, 1-13.

Van Solinge, H., & Henkens, K. (2007). Involuntary retirement: The role of restrictive circumstances, timing, and social embeddednes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5), S295-S30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

Oxford English Dictionary 홈페이지 http://www.oed.com/

Abstract

Analysis of Retirement Patterns Depending on Resignation Voluntariness at Middle and Senior Age

Hyesu, Ye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d what effect the resignation voluntariness had on retirement process for people retiring at their middle and senior age in the course of their lifelong labor cycle. The process of retirement has been classified into different trajectories by following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of retirees after they resign. Empirical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figure out which factors were affecting each retirement pattern.

Research on retirement used to focus on retirement and factors determining re-employment, perceiving retirement as a process. Recent studies now go far beyond to include longitudinal studies of the retirement process itself. Nonetheless, it still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reason for retirement at middle and senior age, which serves as an antecedent of retirement, given repetitive cycle of retirement and re-employment among middle and senior aged retiree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on the continuous process of retirement by focusing on how retirement patterns turn out to differ depending on voluntariness of retirement. The study i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research that the experience of retirement at middle and senior age and the reason for retirement have influence on lifelong labor cycle of the retirees. It also assumed that resignation voluntariness of retirees in their middle and senior age affected their life from the time they resign from their job to the time they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Group-based trajectory model was used to classify retirement patterns of people who experienced retirement at their middle and senior age by analyzing their employment status from the moment they resign from their job to the moment they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 result, different retirement patterns were identified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which factors affected each pattern.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retirement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patterns. The one is "Resignation-Retirement Identification Pattern," where resignation from their job naturally leads to retirement from the labor market. The other is "Resignation-Retirement Separation Pattern," where people re-enter the labor market after resigning from their job and thereby gradually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Separation Pattern" is again classifi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patterns depending on their duration in the labor market after their re-entrance.

Second, analysis on retirement patterns based on resignation voluntariness showed that people belonging to the voluntary retirement group had a higher proportion of re-joining the labor market and tended to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much later than involuntary retirement group. However, in terms of employment status in the labor market they re-entered, voluntary retirees tended to be employed as regular employees or become self-employed whereas involuntary retirees mostly re-joined the labor market as temporary and daily workers.

Third, after classifying retirees based on resignation voluntariness, retirees were again analyzed on the basis of their prior employment status. It turned out that voluntary retirees retired from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period regardless of their prior employment status. Among involuntary retirees, temporary and daily workers were the last ones to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In re-entering the labor market after they resign from their jobs, both voluntary and involuntary retirees tended to get employed at the same employment status they held prior to their resignation.

Finally, factors that affected retirement patterns on the basis of the retirement pattern analysis turned out to be the following. Birth cohort, health condition and education level had meaningful effect for retirement patterns of voluntary retirees. Even though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prior to their resignation were among the factors that had influence, their impact was not that significant. Birth cohort, health condition, education level, and employment status prior to their resignation were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retirement patterns of involuntary retirees. The head of household factor also turned out to have minimal effect.

This research analyzed different retirement patterns based on resignation voluntariness, going one step beyond the existing research on retir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provides theoretical basis for explaining vulnerabilities involuntary retirees have. In particular, retirees who used to be temporary or daily workers before their resignation turned out to be the most vulnerable group, which calls for proper policy response. In conclusion, involuntary retirement affects not only the labor trajectory after their resignation but also life after retirement. Therefore, a proper employment policy is needed that covers the whole employment cycle of individuals while helping them to gain voluntariness in their retirement.

keywords : resignation voluntariness, Group-based trajectory model, Retirement, Retirement process

Student Number : 2010-22998